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5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50 1982년 6월 1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une 1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50여 민족의 고유문화 제전

캐라반 18일 개장

서울관에 한국일보 코너도

이민자들의 종합민속예술제인 금년도 캐라반 행사가 한국을 비롯, 50여개 민족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부터 26일까지 토론토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한민족의 풍물과 자랑거리등이 소개될 서울관에서는 특히 교민의 성장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유일한 일간지인 본 토론토 한국일보를 소개하는 특별코너도 마련된다.

캐라반운영위원회(위원장 이대환)가 주관하는 서울관의 위치는 블루어거리와 인접한 830 Bathurst St.이다.

18일(금) 하오3시30분 개막리셉션을 가질 서울관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우순희, 강신자, 신귀동씨가 본국에서 특별히 파견돼 진귀한 토산품, 부채, 장죽, 인형, 퉁소등을 소개하며 한국고유음식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김용순무용단이 보여주는 고전무용, 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태권도 시범등이 있다.

토론토 한국일보 소개코너 설치는 "짧은 이민역사와 이민자수에 비해 일간지가 성공하고 있음은 우리의 문화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대환위원장은 설명했다.

토론토 에트닉·그룹중 일간지를 가진 코뮤니티는 중국과 이탈리아등이다.

서울관에서는 함병섭씨가 서울시장으로, 이병권씨가 부시장으로 등장하며 미스코리아 선으로 당선된 윤혜련양등 미녀들이 안내를 맡는다.

캐라반행사를 위해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난 10일 3,000달러를 캐라반운영위에 기증했으며 지금까지 실협, 신의상사(대표 문인식), 각 한국식품점, 각 교회 여선교회등이 협찬을 약속했다.

캐라반 패스포트는 블루어 한인상가의 각 식당이나 이대환부동산사무소, 블루어하드웨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일사용권 $5, 9일통용권은 $10이고 1개 파빌리온만 관람하려면 $3이다.

캐라반대회는 대회가 끝난뒤 오는 30일(수) 밤7시 로얄·욕 호텔에서 "시상의 밤"을 갖고 가장 인기있고 훌륭한 전시장을 마련한 민족을 시상한다.

69년부터 실시,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캐라반 행사는 지난 68년 제나·코사르 여사가 창안, 토론토에서 매년 여름 약 10일간 실시되는 연례행사로 각 민족이 주로 자기나라 수도이름을 붙인 파빌리온을 정해 자기나라의 고유문화·전통풍습·산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일반인은 패스포트를 사서 각국 파빌리온을 순회하면서 세계각국의 문화를 감상한다.

세계일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캐라반 행사는 1)자기나라 특유음식과 술을 염가로 일반에게 맛보게 하고, 2)자기나라 특유문화 — 예술품·공예품·특산품등을 진열, 일반이 감상토록하고, 3)민속음악·민속무용·고유악기·무술·합창등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매일 공연하고, 4)공예품·토산품·기념품을 염가로 판매하고, 5)시장(Mayor)과 공주(Princess)를 선발, 현장에서 관객을 영접하여 자기나라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며, 6)일반이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에 입장할 때 자기나라를 표시하는 "비자"도장을 찍어주어 기념으로 보관하게 하는등의 행사를 한다.

한인회는 작년도에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시위선동 협의로 연세대생 검거

(서울본사전화)서대문경찰서는 9일 연세대 윤평호군(22, 사회학과4년), 한민호군(22, 경영학과4년), 김혁균군(21, 응용통계학과 휴학중), 이상아양(22, 독문과)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8일낮 12시25분께 연세대도서관 5층옥상과 대강당옥상에서 반정부유인물 1백여장을 살포해 학생시위를 선동한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스라엘군 전단살포

"베이루트철수하라"

(베이루트)이스라엘은 10일 베이루트에 대한 해상·공중포격을 강화한 가운데 공중전단을 통해 임박한 이스라엘의 입성에 대비, 시리아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시리아 젯트기 26대를 추가 격추시켰다는 이스라엘측의 주장에도 불구, 레바논 전역의 지상전은 시시각각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최후 까지 진지를 고수하라고 지시한 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은 레바논 땅에서 이스라엘군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않는 한 어떠한 휴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 고위관리는 "이스라엘이 이번 공세에서 목표한 레바논내 팔레스타인 요새 파괴는 다 이루어졌으므로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레바논 동부의 파괴된 미사일을 대체시키지만 않는다면 휴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150대 전투기를 앞세운 9일의 대규모공격으로 17기의 아랍측 미사일이 파괴됐었다.

베이루트를 향한 집중공격이후 이스라엘은 비처럼 뿌린 전단에서 "레바논에 주둔한 4만 시리아군에게 전면전은 피하고 싶으므로 자살행위와 같은 무모한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 수시간내로 스스로 철수하라"고 밝혔다.

전단은 또한 시리아군의 2가지 퇴로까지 표시했으나 시리아군이 철수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방 옵저버들은 34년의 중동전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랍권 수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다마스커스, 카이로, 암만, 베이루트등의 점령 일보직전에 후퇴했었다.

베이루트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갈 경우 중동지역의 정치판도는 재구성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한 팔레스타인인의 수는 8천에 달한다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대변인이 10일밤 밝혔다.

인명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여자들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힌 아신·살라메씨는 "이스라엘군은 병원과 앰블런스에까지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다행히 수혈용 피는 충분하나 의사의 수가 모자란다"고 말했다.

많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군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맹렬히 저항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아직 베이루트까지의 주요도로를 차단치는 못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야구상식

야구는 북미 생활의 일부

박재선(리틀야구 진행위원)

본사가 주최하는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를 앞두고 교포체육인 박재선씨의야구상식을 연재한다. 박재선씨는 야구 대회의 진행위원장직을 맡고있다.

박재선씨

스포츠가 현대인의 교양이니 생활이니 하는 말이 보편화된 것은 현대인의 모든 생활이 스포츠 속에서 영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이후 모든 분야가 다 그러했지만 특히 체육계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생활의 일부가 된 스포츠를 십분 이해하고 올바른 경기를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닦는데에는 물론이고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려면 먼저 그 경기의 여러 규칙을 잘 알아두는 것이 긴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으로 특히 아직 야구경기경험이 적은 어린이, 또는 심판경험이 적은 분을 위해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연재, 야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구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캐나다에서 국민학교학생이 있는 집에 가보면 야구글로브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가를 증명해 준다. 비단 남자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야구를 남자와 꼭같이 하고 있다. 우리 한인교포사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것이 어른들의 의무일 것이다. [2면에 계속]

경제특집 지상 FORUM

불황 진단과 대책

본사는 악화일로의 불경기에 대비 「불황진단과 처방」이란 특집을 마련, 본사의 취재팀과 교민경제 전문가들과 더불어 지상훠럼(Forum) 형식으로 오늘부터 연재한다.

증권분야는 메릴린치증권회사의 강상욱씨, 금융부문은 이수신외환은행전무가 맡고, 정부측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경제학박사 김상용씨, 소매상의 입장에서는 차선겸 실협회장이 각각 견해와 대책을 피력한다. 본 특집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자료등은 본사 편집부로 직접 연락바란다. (533-2361)

침체(Recession)? 불황(Stagnation)? 공황(Depression)?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영업이 잘 안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교포들의 상점가를 들러봐도 세일(판매고)이 늘었다는 소리보다는 언제쯤 이자율이 내리냐고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높은 이자율은 점점 더 오를 예정이다. 10일 발표된 중앙은행금리는 16.20%로 올라 캐나다의 주요은행들은 최우대고객에게 적용하던 17.5%의 프라임·레이트(Prime·Rate)를 더 올릴 예정이다.

최승낙 캐나다외환은행장은 12-13%하던 것이 7.2%선으로 진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불경기의 밑바닥이 보였다면서 미국의 경기는 금년 가을, 캐나다의 경기는 내년쯤 회복되리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지켜보아온 교포 증권소개업자인 메릴린치의 강상욱씨는 "불경기의 끝은 알수 없다. 현재 미국 제조업의 가동률이 역사상 최악의 기록(72%)에 육박하는 74%선에 이르렀다"고 경기회복 전망에 비관적 결론을 내렸다.

불경기의 악영향이 미치는 곳은 큰 공장이나 석유회사 같은 재벌그룹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율이 늘고 대기업들의 임시해고율(Lay-off)은 점점 증가, 실업자는 전국적으로 9.6%, 120만명에 달한다. 인프레율이 12%이상을 맴도는 캐나다는 설상가상으로 대미화환율이 매일 매일 하강, 10일 기록은 미화 1달러당 79.11센트였다.

한국같은 외환통제국가는 환율을 인하, 수출을 증가시키고 외국투자금을 끌어 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캐나다처럼 소비재등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환율인하가 수입가격을 올려 인플레를 더욱 부채질하는 한편 자유외환정책으로 투기성자금이 미국으로 마구 빠져나가 대미환율인하를 가속화 시킨다.

불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버라이어티등 상업에 종사하는 교포들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실질매상액이 줄어들었다고 불만이다.

상점의 매상감소, 임시해고자 증가, 이자율 인상등은 한인상대 업소에 더욱 뚜렷이 영향을 주고 막대한 타격을 가한다.

사진관, 음식점, 광고업체, TV상등 교민업소가 하나둘 알게 모르게 사라진다. 물론 그들의 도산이 불경기탓만은 아니다. 자본이 부족하거나 경영부실에서도 올 수 있고 타업종으로의 전환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한인업소가 모여있는 블루어거리에 나가보면 루머가 난무한다. B업소가 넘어간다, S업소 주인이 바뀐다, D음식점이 생긴다는등, 소문은 많으나 좀처럼 거래가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경기가 나빠 아무도 선뜻 새 사업을 시작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닥의 끝이 보이나?

교민업소, 소매상들도 타격

"장사는 불경기때 시작하라"는 격언이 있다. 경기변동곡선의 마지막에서 시작해야 사업을 싸게 살 수 있어(도산업체 인수등) 자본을 적게 들일 수 있고 경기회복에 따라 판매고도 늘어난다는 원리이다. 문제는 다만 이 바닥이 언제냐? 즉 언제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하는 것이다.

〈유승민 부장〉

중앙금리 16.2%

달러는 계속 하락세

캐나다 중앙은행의 은행금리(Bank Rate)가 10일 16.2%로 올랐으나 시중은행의 최우대금리(Prime Rate)는 계속 17.5%에 머물렀다.

91일 단기정부공채(Treasury Bill)처분후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중앙은행금리는 이번 인상으로 계속 하강일로에 있는 캐나다달러 가치를 떠받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보수당의 제임스·맥그라스의원은 이날 "금년 여름의 금리가 작년여름의 22~23%를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예고했다.

한편 뱅크·오브·커머스의 도날드·풀러톤씨는 "아직 프라임레이트를 올릴만한 충분한 인상요인은 없으나 다음주에 인상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 매일 기록을 갱신하면서 하강하고 있는 대미화환률은 10일 미화1달러당 79.11센트를 기록했다.

북미 외환시장의 중개인들은 미국의 단기금리가 계속 인상, 미화는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	14.25%	14. %
	90	14.75%	14.5 %
	180	15. %	14.5 %
	1년	15.25%	14.7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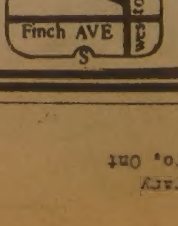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국인 시험관아기 탄생

LA교민 수·리씨·건강여아

미국서 3번째· 비용 $3,700

(LA지사—박희서기자)사상 최초로 한국인부부를 통한 시험관아기가 9일 상오10시52분 LA카운티—USC메디칼센터 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이 시험관 아기는 미전국에서 세번째며 서부에서는 첫번째다.

아기의 체중은 7파운드이며 어머니는 33세의 교포 수·리씨로 밝혀졌다.

수·리씨는 8일 하루종일 진통을 하다 정상분만 하지 못하고 9일 상오에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분만했는데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

이 아기는 지난해 9월부터 미서부지역에서 실시된 USC의대 산부인과 시험관아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어났으며 아기의 이름은 크리스틴·영·리.

시험관아기 프로그램 책임자 리처드·마스박사는 『산모가 72년에 가졌던 나팔관수술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태를 하지 못해 시험관에서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하오1시 시험관아기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진 마스박사는 30여명의 의료진을 대동하고 70여명의 보도진에게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며 아기의 부모가 지극히 만족해 하고 있다』고 전하고 『오는 10월과 11월에 또 다른 시험관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USC메디칼센터에서 시험관아기를 갖기위해 인공수태를 실시받은 사람은 지난해 9월이후 모두 25명이었는데 그중 5명만이 수태에 성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씨의 난소에서 난자를 꺼내 특수처리된 접시에 놓고 이씨의 남편의 정자를 채출 접시위에서 난자와 정자를 결합해 수태에 성공, 수태된 난자를 다시 산모의 자궁에 이식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들은 마스박사와 부인 조이스·발가스박사 그리고 빌·기본스박사및 간호원 실비아·번스틴여사이다.

시험관아기 수태비용은 3천~6천달러인데 이씨의 경우 3천7백달러가 들었다.

「비트로 수정」이라고 알려진 이 시험관아기수태의 성공률은 15~20%라고 의사들은 밝혔다.

▲최초의 한국인 시험관아기가 9일 상오10시52분 USC메디칼센터 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체중 7파운드에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이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다고. 이 여아의 이름은 크리스틴·영·이. 〈유근철기자 찍음〉

社說 1인 1스포츠를

—어린이야구대회를 맞아

"튼튼한 몸, 굳건한 정신!"이란 슬로건 밑에서 교포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일보사배」 야구대회가 7월3일, 토론토 코로네이션·팍에서 벌어진다.

본사 주최 제1회 리틀야구대회 출전을 앞두고 연습중에 있는 팀은 11일 현재 6개팀.

이땅 교민들의 건강증진, 건전한 리크리에이션을 위해 본사는 볼링대회와 스키캠핑을, 수년전부터는 대규모 「봉황대기」 야구대회를 구상해 오고 있던 중, 우선 올해에는 소년들의 야구대회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일반적 통론이 스포츠맨과 애호가등 운동인은 선이 굵고, 책임감과 의지가 굳으며, 대인(大人)다운 큰 틀을 갖추고 있다한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즐기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인간형성을 기틀잡는다면, 먼 내일, 그가 인생의 활무대에서 추억으로 될 때에 투지와 의욕등 적잖은 저력으로 그의 삶에 뒷받침이 되어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록잔디가 쪽 깔린 광장에서 싱싱한 대기를 한가슴 가득히 들이마시며 푸르른 창공에 백구를 날리는 야구인의 모습은 사내다운 기개와 긍지를 살찌워주는 장쾌한 남아상(男兒像)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야구는 하키, 미식축구(풋볼)와 더불어 북미 3대 스포츠중 하나이기 때문에 야구는 상식으로도 알아두어야 한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한편, 캐네디안들과 어울렸을 때 한국 후예들은 "스포츠에서도 뛰어난다"는 인상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야구대회에서는 1)트로피 남발사례를 지양하고 2)형식을 배제, 입장식등 허식을 없애며 3)출전팀은 경기스케쥴에 따라 구장에 나오게 해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등을 시도할 예정이다.

아무든 교포사회에 스포츠붐이 일어 전체 교민이 최소한 1인1기, 이상의 운동을 즐기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1면에서 계속]

소프트볼의 연혁과 규칙

◆연혁……미국에서 처음 야구가 시작된 것은 1839년 당시 뉴욕주의 쿠퍼타운에 소재한 육군사관학교생도 "다볼데이"(A. Doubleday)가 고안한 것에 연유한다고 전해진다. 한국에 야구가 들어간 것은 1905년 미국 선교사 "길렛트"(Gillett)씨가 당시 서울의 황성기독교청년회원들에게 지도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종류……야구에는 경식야구, 연식야구, 소프트볼등이 있다.

이글에서는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한국인들이 경기를 해온 소프트볼의 규칙을 중심으로 적겠다.

◆조직……캐나다내에서의 소프트볼경기단체의 조직에 있어서 연방에는 캐나다협회, 주에는 온태리오협회, 각시에는 시협회가 있다.

이들 협회에서 말하는 소프트볼이라 함은 여러가지 명칭의 인도아볼, 인도아—아웃도아, 플레이그라운드볼, 마쉬볼, 다이아몬드볼, 킷튼볼, 리크레이숀볼, 라이트닝볼, 해스트볼 그리고 소프트볼등의 총칭이다. 그리고 소프트볼에는 스로우피치, 해스트핏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해스트핏치이다.

◆심판원에게: 모든 소프트볼 경기에서 코치들, 선수들, 관중들 그리고 심판원들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표적은 적절하고 합당한 심판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가)심판하는데 필요한 조건

1.규칙을 확실히 알것(절대 불가결한 선결조건이다)(Knowledge of rules)

2.건전한 체력(고단하고 피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함이 좋다)(Physical Fitness)

3.적절하고 옳은 판정(지각,위치 그리고 경험의 삼요소)(Good judgement)

4.일관성있는 판정(참된 일관성은 양팀에 동등하게 유리하도록 시도하는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Consistency)

5.확고한 판정(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정)(Decisiveness)

6.확신과 자신을 갖고 판정(5번과 관계가 있다)(Confidence)

7.공정한 판정(관중,선수들 그리고 경기영향으로부터 독자적이여야 함)(Fairness)

8.용기를 갖고 대담한 판정(용감한 심판원은 그가 본대로 판정)(Courage)

9.정력적으로 추진력있게 진행(Hustle)

10.균형이 잡히고 안정상태에서 판정(이것은 자기 콘트롤이 돼야함)(Poise)

나)심판원이 하지말아야할 점

1.신경과민이 되지말것(Over—Sensitive)

2.자랑삼아 보일려고 하지말것(Show—off)

3.논쟁, 시비등을 하지말것(Argue)

4.예상해서 미리 생각하지 말것(Anticipate)

5.함께 일하는 심판원을 책망하지 말것(Criticize)

6.선수, 관중들과 개인적 친교를 하지말것(Fraternize)

7.끝까지 의무에 충실하고 무책임하지 말것(Irresponsible)

8.음주하지 말것(Drink alcohol)

9.구장, 선수, 심판의 구비조건이 미비면 시작하지 말것(Unprepared)

10.감정에 치우치지 말것(Emotional)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

재미교포 2세의 74.4%

(서울11일=연합)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청소년들은 모국과 정신적 유대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한 통계에서 드러났다.

숙명여대 조은숙교수가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국학생 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응답자의 74.4%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72.1%가 한국역사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85%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53%가 영어구사에 자신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한국말 대화에 자신있다는 답변자는 52.6%였다.

결혼에 관해 38.5%가 한국인 배우자를 택하겠다, 38.3%가 "결정한 바 없다", 19.9%가 국적을 개의치 않는다고 답변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랜시스코등 미국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사회적, 학문적인 생활에 만족을 표시한다고 답변했다.

야구선수 모집

경기상고 동창회

경기상업(도상)고등학교 동창회는 오는 26일 있을 고교동창야구대회에 참가할 동문선수들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선수부족으로 한번도 참가못했던 동교동창회는 이번에는 꼭 참가, 동창들의 우의를 다짐하겠다고, 관계되는 동문들의 연락은 구진모부회장에게, 전화: 531—2236

〈식 자 안 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가격저렴

★ 빠른 서비스

한국일보사

☎: (416)533—2361

◀금주의 행사▶

(6월14일~20일)

◆16일(수) 하오8시 북미프로축구 (Blizzard vs Potland Timbers)
곳: CNE 스타디움
참조: 조영증선수

◆18일(금) 한인Y베타클럽 월례회
곳: 토론토한인Y회관 (931 College St. Toronto)

◆18일(금)~26일(토) 캐라반 민속제전
서울관 개관장소: 860 Bathurst St.

◆19일(토) 상오9시 제4회 고교동창배구대회
곳: Boyd Conservation Park
연락처: 960—5736(김인규)

◆19일(토) 상오10시 제3회 한맘교육강좌
주제: 한글교육과 한국인의 얼
곳: 한맘문화회관 (439 Dundas St. E.)
연락처: 293—7801

◆19일(토) 상오11시 상록회(위니펙동우회) 야유회
곳: Sunny Brook Park
연락처: 782—4027 (김마리아)

◆19일(토) 상오11시 서울농대동창 야유회
곳: Eldorado Park
연락처: 497—4405(신동운)

◆19일(토) 상오11시30분 골프대회 (오샤와 한인실업인협회 주최)
곳: Kedron Dells Golf Country Club
연락처: 666—1727(이영민)

◆19일(토) 상오11시30분 제1회 북미태권도 초청 챔피언쉽
곳: 에토비콕 올림피움(590 Rathburn Rd)
연락처: 535—4000

◆19일(토) 하오7시 영화의 밤(숭공문화협회 주최)
제목: 1.최홍희, 최덕신 북한방문기자회견 2.달려라 풍선아
곳: 한인회관
참조: 무료입장

◆20일(일) 상오10시 고대교우회 야유회및 낚시대회
곳: Glen Haffx Conservation Park
연락처: 621—4890(서준경)

◆20일(일) 하오7시30분 제일장로교회 헌당예배
곳: 68 Collinson Blvd.
연락처: 636—1724

제일교회 건물 구입

$37만 캐쉬·대예배실 350석

◆김용출목사

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담임 김용출목사)는 자체 교회당을 구입, 오는 20일 하오 7시30분 헌당예배를 드린다.

68 Collinson Blvd, North York에 소재한 새교회는 캐네디언연합교회가 20년전 설립, 10년간 사용하다 유대인들이 구입, 그들의 회당(Sinagogue)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온 건물이다.

이 교회는 대지 ¾에이커, 대예배실 수용능력 350석과 60~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파킹장 및 지하실, 사무실을 갖고 있다.

$37만 전액 현찰로 이 교회를 구입한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76년1월부터 건축위원회를 구성, 자체교회 마련에 박차를 가해 왔다.

제일장로교회는 72년12월 창립된 후 3번 예배장소를 옮겼다.

출석교인이 장년 200명, 어린이 130명으로 성장한 동 교회 담임 김용출목사는 새 교회구입과 아울러 해외 및 교포선교와 2세교육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교회는 현재 필리핀에 현지 선교사 2명을 파송하고, 2개의 한국 개척교회를 돕고있다.

제일장로교회는 한인장로교회·오순절장로교회·동부장로교회에 이어 4번째로 자체교회를 구입한 한국인 교회이다.

프로 L.A 레이커스 우승

농구 필라델피아 물리쳐

(LA지사)LA레이커스팀은 8일밤 잉글우드포럼에서 열린 프로농구 NBA챔피언쉽대회 6차전에서 숙적 필라델피아 76ers팀을 연전끝에 114대 104로 격파, 게임전적 4대2로 우승했다. 레이커스는 80년 대회우승을 차지한 이래 3년만에 두번째 우승한 것이다.

레이커스의 매직·존슨선수(22)는 체육기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명예의 MVP상을 수상했다. 존슨선수는 이날 총득점 13,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 13개라는 「트리플-다블」기록을 세웠다. 레이커스는 최근 운좋게 사들인 매카두선수의 분전에 힘입어 이날 승리의 원동력을 마련했다.

레이커스의 챔피언쉽 획득기념 퍼레이드는 10일 상오 11시 7가와 브로드웨이서 열린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533 2361

◆레이커스가 또 이겼다—80년 우승이후 두번째 챔피언이 된 LA레이커스는 8일 필라델피아 76ear팀을 114대 104로 여유있게 물리쳤다. 「인간장대」압둘자바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LA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젖,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5>

어떤 情事 ⑤

해운대 모래사장서 만난 첫 사나이는…

샤워를 끝낸 그들은 해변으로 나갔다. 문자는 검은 색 비키니 차림이었고 명자는 노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명자의 말이 빼가 나와 비키니는 못입겠다는거였다.

문자는 곧장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멀리까지 헤엄쳐 나갔다. 결혼한 후에 열심히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그녀의 수영 실력은 좋은 편이었다.

일백미터쯤 헤엄쳐 가다가 숨이 차 벌렁드러누웠다. 눈부신 햇빛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가까운 곳에서 휘파람소리가 여러개 들려왔다. 눈을 조금 뜨고보니 윈드서핑 세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돛을 붙잡고 버티고 서있는 청년들이 그녀에게 휘파람을 불어대고있었다. 윈드서핑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젊은이 하나가 그녀를 스치듯하며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청년의 중심부만 보였다. 그곳이 부풀어 있었고, 청년은 보아란듯 그곳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정강미 넘치는 웃음을 날리며 청년은 왼쪽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다시 눈을 감았을때 이번에는 힘차게 물을 헤치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그녀는 사람을 바로 하고 눈을 떴다. 한 사내가 후우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이 보였다. 진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물을 떨어내리고 머리를 흔들다가 그녀를 보자 움직임을 멈췄다. 얼굴이 미남형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다. 그가 흰 이를 조금 드러내며 소리없이 웃었다. 문자는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설레임 같기도 하고 전혀 낯선 감기도 한 그런것이었다. 나이는 얼른 종잡을 수가 없었다. 마주 웃어주어야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내는 이미 몸을 돌려 해변쪽으로 가고 있었다. 문자는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 사내의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헤엄쳐갔다. 뒤에서 보기에도 힘찬 모습이었다. 물가에 닿으면서 보니 그는 이미 파라솔 밑에 들어가 앉아있었다. 그 옆에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

문자는 일부러 그들 곁을 지나치면서 여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놀랍게도 못생긴 중년부인이었다. 그러나 돈푼께나 있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저 치들 말이야」

문자는 그때까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앉아있는 명자에게 선글라스의 사내쪽을 가리켰다.

「이상한 한쌍이야. 남자는 젊은데 여자는 늙었어. 마흔은 넘었을것 같아」

「뭐 그렇고 그런 사이겠지 뭐. 저 남자 몸 좋더라」

「너 눈독 들이고 있었구나?」

「아니야, 물속에서 나오는거 방금 봤어. 키도 크고 가슴도 벌어졌더라. 얘, 가슴에는 털이 시커멓게 났던데」

그때 그 사나이가 일어서서 이쪽으로 걸어왔다. 놀랄만한 체격이었다. 문자의 눈은 자기도모르게 그의 하체로 향했다. 그 부분이 주먹만하게 부풀어있었다.

「어머머, 저거좀 봐. 거기가 섰나봐」

명자는 문자의 귀에 입을 대고 재빨리 속삭였다. 남자가 가까이 왔다. 가슴에서 배꼽 아래까지 시커먼 털로 덮여있었다. 그 부분이 무슨 괴물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다.

朴 男 그림

—〈독자의 광장〉—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김숙자 (토론토 가정주부)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말도 많은 사회입니다. 딸을 미인대회에 출전시켜 놓고 이렇게 말이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남이 충고하여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듣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한데, 온가족(아버지, 딸, 어머니)이 의심과 불평으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시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진으로 뽑혔으면 그런 글을 쓰지 않았겠지만"—이것이 어머니의 글입니다.

선으로 뽑혔기 때문이라고?

그럼 "미"나, 등외 사람은 온 가족, 친지까지 글을 써야 합니까?

우리 모두 반성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남이 악의 없이 충고할 때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좋지 않을까요?

"진정한 부탁"을 써 주신 윤숙자씨,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읍니다. 안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모두 불만과 불신만을 되씹기 이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그러면 가정과 사회가 밝게 되며, 마음도 편안하여집니다.

어머니의 글이 딸을 더 피롭히는 결과만 낳게 합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을 얻어 배운 것으로 만족하도록 타이르면 어떠할까요?

심사원들을 너무 피롭히지 말았으면 해요. 이렇게 말이 많으면 어느 누가 심사석에 앉겠어요.

지난 일 교훈삼아 우리 교민 모두 반성하고, 일보 후퇴가 이보전진을 말합니다. 피롭던 마음 잊고 밝게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M신문 6월4일 "진정한 부탁"— 윤숙자씨 글을 읽고, 두서없이 몇자 적어보았읍니다. 숙자씨만 이렇게 글로 되씹지만 않았다면, 그나마 운양의 아쉬움이 조금이라도 여운이 남았을 것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Y 어린이여름학교

●노인및 성인 영어교실 : 무료
(월~목 : 오전 9시반~11시반)

어린이 여름학교

●일 시 : 7월5일(월)~8월27일(금) 8주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9:30~오후3:00
● 곳 : Heydon Park Secondary School
(College 남쪽 두블럭 Dovercourt선상에 있음)
●대 상 : 유치원생~9학년생
●마 감 : 약 60명 (선착순)
●회 비 : 월 $110(1명) $200(2명) $270(3명) $300(4명)
●과목들 : 다같이 : 한글·한국문화·수영·운동·영화·소풍(매주 금요일 예정)
선택(2개정도) : 무용·태권도·미술·축구.
개인지도 : 피아노·바이올린·기타(GUITAR)·피리
학과보충지도 : 영어·수학·과학·불어·미술
●교사진 : 김정숙·권혁일·정호영·김필숙·홍진숙·윤영희·김이본·이정희
강미희·김한미·김영인·이조안·최귀암·정크리스티나·김창렬
●문의처 : MR. 김(536-1166) 931 COLLEGE ST. TORONTO M6H 1A1

※—한글만 배우는 학생은 무료임. —개인지도는 무료임.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오전8시~오전9시와 오후3시~오후6시 DAY CARE가 있음.
—스쿨버스(월 $100~ $130정도 선착순)

동대소식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그동안 이 곳 토론토에 새로 정착한 항공정비사 50여 가족들은 여러 교민들께서 도와주신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녁 파타임 JOB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총영사관 $300, 실업인협회 금일봉, 문인식 침대2개, 전윤식 소파, 임병직 TV, 임창빈 냉장고.
⊙방을 제공해 주신 분들
유용근·윤호섭·김경진·이태준
⊙교통편 제공
새예루살렘교회·갈보리교회·서머나교회·빌라델비아교회·송기선·신영식
⊙일자리 주신 분들
한인회·이정재·이인용·장영채·유용근·곽정열·김덕배·김홍태·황두환·강중석·한강국·김서일·최재명·신영식

※연락처 : 한인회 755-9288 총무 : 491-9701

토론토한인회 회장 박인순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附價稅 課稅특례자 擴大

金副總理 납부節次도 대폭 간소화

讓渡稅 감면 1년6개월로

融資, 中小기업·농촌에 重點

經濟장관、嶺·湖南지역 商工人과 간담회

金埈成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金正濂보사부장관을 대동、상오에는 全州에서、하오에는 光州에서 각각 이들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방향과 지방업계 고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상오 全北지역상공인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全州商議에서열린 간담회석상에서 金부총리는 부가가치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3~5년간의 시한부로 폐지해달라는 지방계건의에 대해『부가가치세문제는 세율자체를 손질하기보다 과세특례자의 대상을 확대조정하고 납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5·18조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5%시한 연장역시 현재의 1년에서 1년6개월 또는 2년간으로 연장하는 문제가 실무진에서 검토되고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토개발이나 사회개발계획을 짤때 지역발전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에대해 金부총리는 앞으로『지방재정을 더욱 강화、지역별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앙정부가 중심이되는 사업을 가능한 지양하고 지역사업을 활발히 벌여 지역간의 불균형이나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이미 정부가 농가의 農外소득을 늘리기위한 구체적방안을 마련중에있어 오는 10월께면 그내용이 발표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이내용은『지역별로 알맞고 특성있는 사업을 선정、육성해나가는것』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어음결제기간 연장등 중소기업에대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그는『피해입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적극고발하여 시정하려는 自求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정부가 공정거래제도측면에서 시정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횡포를 고발하기를꺼려 노출되기 어려운데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간담에 참석한 지방상공인들은 중소기업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천억원규모의 지방도로포장및 확장사업에 지방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金東輝상공부장관은 앞으로 각시중은행의 융자조건을 개선시켜 중소기업과농촌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이날상오 10시釜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운용에관한 간담회에서 그간계속돼온 농촌소득사업만으로는농가소득향상이 한계점에 도달했기때문에 도로포장등 사업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姜慶植재무부차관은 예금주 기명제도를 실시、사채양성화방안을 세우고 기명예금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등 사채양성화를 위한 세제개혁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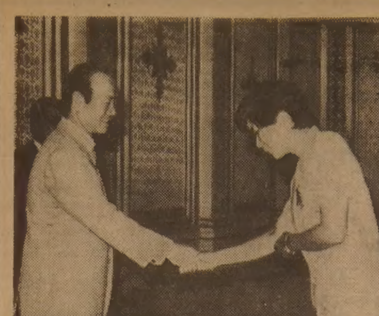
한편 釜山지역 상공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착공키로된 낙동강하구언공사의 조기착공、섬유쿼터관리운영의 개선、연근해어업의 영어자금방출및 어업용 유류에대한 계속적인면세조치등 연근해 어업지원의강화와 지방은행 육성방안등을 건의했다.

◇젖 먹이는 難民여인 南部 레바논의 한 팔레스타인 여인이 주민들에게 즉시 마을을 떠나라는 이스라엘軍당국의 경고가 내려진후 마을을 빠져나오는 주요도로상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있다. 【南部레바논 9日UPI聯合=聯合】

韓半島평화統一 상호協調

經濟協力등 各分野협력 모색

韓·자이르頂上 공동성명발표



全斗煥 대통령과 모부투 자이레 대통령은 9일 하오韓·자이레공동성명을 발표,『양국 대통령은 한국문제는 南北韓간의 대화를통한 민족적 화해와 합의에의해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돼야한다는점에 의견을같이하고 이러한 공동의입장에 입각해 이목표달성을 위해 非同盟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상호긴밀히 협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부투 대통령의 離韓에앞서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또 全대통령이모부투 대통령에게 한반도문제와 관련、한국정부가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조국의평화통일을 위해경주해온 제반노력、특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설명했으며 이에대해『모부투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위한 한국민의 노력과 주도적역할、특히 全대통령의 한국평화통일정책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14개項으로된 이 공동성명은 이어 양국 대통령은 국제정세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근 정세를 검토、主權독립 영토보전 분쟁해결을위한 무력사용금지및 他國內政에 대한 불간섭원칙의 존중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긴요하다는 신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특히 두나라의 자립경제체제강화와 양국국민의 自給自足실현을 위한 두나라정부의 노력에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이 각국민의 상호이익에 합치되게 발전、강화돼야한다는점을 고려해 두나라 관계장관에게 각분야에서 협력을 고무、촉진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발전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이어모든형태의人種차별과식민주의에반대한다는 양국정부의 공통된정책을 재확인하고 南아프리카지역에서 자행되고있는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했으며 나미비아의 조속한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단결기구、비동맹운동및 유엔의 정당한 제반결의、특히 안전보장이사회결의 435호에대한 지지를재천명했다.

공동성명은 또 81년에 체결된 일반、무역、문화등 3개협정을 즉각 발효시킴으로써 협력을 구체화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밝히고 교섭중인 해운협정과 투자증진및보장협정에 관해서도 깊은관심을표하고 조속히 체결키로했다고 말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全대통령에게 가까운 장래에 자이레를 공식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全대통령은 이초청을 기꺼이 수락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모부투 오늘離韓

모부투 자이레 대통령은訪韓 3일째인 9일 상오 공군○○基地를 시찰한뒤 하오에는 蔚山에도착、現代造船所에 들러 조선소시설을 살폈다.

모부투 대통령은 이어 浦項製鐵을 시찰하고 海兵○○부대를방문、장병들을 격려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10일상오 新羅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로 全斗煥 대통령을 告別방문한뒤 상오10시 離韓한다.

國威선양 選手초청
全대통령, 午餐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9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최근 각종 국제경기에 참가, 國威를 떨친 선수들을 초청, 오찬을 베풀고 이들을 치하했다.(사진)

이자리에는 丁順福선수(22)등 아시아지역 豫選대회에서 우승한 여자핸드볼선수및 임원등 20명, NHK배 국제배구대회에 참가했던 男女선수등36명, 高奇禮양 (26) 등 람중히말登頂에 성공한 鮮京여자산악회원5명등이 참석했으며 李源京체육부장관、曺相鎬체육회장、趙錫來대한핸드볼협회장、金宗河대한배구협회장、吳漢九대한산악연맹회장등이 배석했다.

「領袖회담」오늘이 고비

參席범위異見 어제總長회담流產

시국수습을 위한 與野領袖회담을 추진하고있는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 사무총장은9일상오두번째회담을갖고與野領袖회담의참가범위등에대해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各黨의 의견이맞서 流產되는등 難航을계속하고 있다.

權翊鉉 民正 柳漢烈 民韓黨사무총장은 이날 3黨총장회담이 流產되자 단독회담을 가졌는데 이자리에서 權총장은『3黨代表회담이 民正黨측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民韓黨은 10일상오10시 다시 擴大간부회의를 열고 참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협상은 10일이 고비가 될것으로 보이며 협상이 계속 진전을 보지못할 경우 영수회담은 來週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날상오 柳 民韓黨사무총장은 權 民正黨사무총장을단독으로만나 단독회담이 되어야한다는 확대간부회의의결론을 전달한후『民韓黨이 領袖會談에 관한 黨內의견을조정중이니 3黨事務총장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요청、流產되었다.

이자리에서 權총장은『단독회담요구는 더욱 문제를곤란하게 만들우려가 있다』면서『3黨대표를 靑瓦臺로 초청하는것이 民正黨의 기본입장』이라고 통보하자 柳총장은『10일 黨論을 결정한뒤시 만나자』고 말했다.

그런데 民韓黨은 이날 긴급확대간부회의에서 與野영수회담의 참석범위및 議題를 3黨사무총장회담에서 결정하기에앞서 柳致松총재가 지난2일 기자회견을통해 밝힌 당초의 입장을 民正黨측에 공식적으로 전달、民正黨의 공식반응을기다리기로했다.

金珍培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柳총재가밝힌 면담의 대상은 全斗煥 대통령이며면담의제는 李·張부부사건의 진상규명、총리및 관계장관리責、기타 시국전반의 수습방안』이라고 상기 시키면서 이같은 당초의입장을 사무총장線을통해 民正黨측에전달、이에대한 民正黨측의 정식반응을 기다리기로했다고밝혔다.

이·시리아 탱크戰

레바논 절반장악… 3面 포위攻擊

【베이루트·텔아비브9日UPI=聯合】레바논남부와 중부지역을 공략중인 이스라엘군은 9일현재 베이루트외곽 12킬로미터지점까지 진격하여 시리아군과 치열한 탱크전을 벌이고 있으며 80킬로미터에 달하는 베이루트의 남부해안지대를 포함, 레바논전체의 절반가량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6일 남부레바논에 전면 침공한 이래 8일 제진부근에서 시리아군과 가장 치열한 탱크전을 벌였다.

【베이루트8日AP=聯合】이스라엘군은 8일 1백대의 탱크·기갑차량과 상당수의병력을 베이루트 동남방20km의 레바논 산악지대로 공수、남부 레바논의 팔레스타인게릴라 거점들에 대한 3面포위전략에 나섰으며 남부레바논파 베이루트를 잇는 해안고속도로를 거의 완전히 장악한채 시리아군이 포진하고있는 베카계곡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北進하고 있다고 이스라엘군사령부가 발표했다.

이와함께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전투이래 처음으로 이스라엘·레바논국경 북쪽 30km의 제진부근에서 시리아軍과 지상전을 벌였으며 연이틀째 시리아 전투기들과공중전을 벌여 시리아 미그전투기 6대를 격추시켰다.

또 베이루트 동부에서는 시리아군과 포격전을 전개、팔레스타인 게릴라 소탕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리아軍과의 이같은 전투가 있은후 베긴 이스라엘수상은 시리아에대해 이번전투에 개입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社告

「한국教育者大賞」시상식

오늘 상오10시30분 世宗文化회관 소강당

제1회 「한국教育者 大賞」의 시상식이 10일 상오10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립니다.

창간 28주년을 맞이한 한국일보가 진정한 師道의 등불을 밝히고 새로운 教育者像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 教育者 大賞」은 어려운 여건에서 외로운 教壇을 지켜가는 이땅의 모든 스승들에게 온국민의 감사와 존경을 모아 바치는 한아름의 꽃다발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광의 「大賞」 수상자 두분에게 각 5백만원씩의 상금및 세계일주 여행의 부상이, 「스승의 賞」 수상자 스물네분에게는 각 1백만원씩의 상금과 상패가 증정되며, 아울러 외롭고 험난했던 수상자들의 師道를 위로하고 찬양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수상자들의 가족·친지·제자 여러분과 교육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영예의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大賞=朴昌禮 (仁川東明국교교장) 高昌先 (濟州五賢中교사)

◇스승의賞=成百信(서울中東中교사) 丁鍾聲(서울慰禮국교교감) 裵重源 (釜山鎭女中교사) 尹仕遠 (釜山좌천국교교사) 張基五 (大邱경운中교장) 河清鎬 (大邱황금국교교사) 崔熙文 (仁川南中교장) 朴旺熙 (華城비봉中교사) 金基鳳 (楊州덕도국교교사) 金柄喆 (麟蹄원통高교감) 洪鍾允 (春川계성하교교장) 金榮爽 (公州高교사) 李圭采 (論山동성국교교감) 李容美 (清州일신여고교사) 徐鍾圓 (清州서원국교교사) 安南燮 (光州하운여중교사) 趙柱善 (驪州郡교육장) 金源喆 (南原農高교장) 韓圭準 (長水덕산국교교감) 姜英奎 (晋州대아中교장) 李昌圭 (忠武유영국교교감) 金君洙 (漆谷若木中교감) 柳長春 (鬱陵천부국교석포분교장) 朴性勳 (清州맹아학교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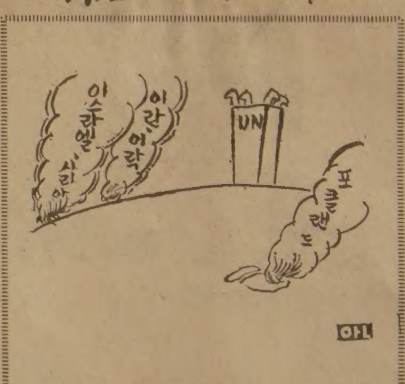
르포라이터 金容誠씨 다시執筆

文學史探訪 10년만에 連載

週1회 5면에

독자들의 절찬을 받았던 한국일보의 인기연재기획 「文學史探訪」이 10년만에 다시 두번째 연재를 시작합니다. 오는 10일자부터 週1회 5면에 게재될 이文藝기획물은 지난72년10월부터 73년9월까지 45회에 걸쳐 연재됐던 「文學史探訪」의 續篇일뿐만 아니라 「발로 쓰는 한국문학사」의 결정판이기도합니다. 또한 이것은 「韓國世界文學全集」등 한국일보 文藝기획물의 큰 맥을 잇는 力作이 될것으로 자부합니다. 취재와 집필은 10년전과 마찬가지로 작가 金容誠씨가 맡아 의욕을 태우고 있읍니다. 한국의 現代精神史를 탐험하는 「文學史探訪」에 독자여러분의 애독과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社會漫評



높아서 불구경하긴 좋겠군…

地平線

名演說하면 미국사람들은 F·루스벨트대통령이 뉴딜정책을 밝힌 爐邊談話를 연상하기일쑤다. 經濟恐慌으로 失意에빠져있던 미국사람들은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放送에 나와 대화하듯 차근히 經濟再建을 국민에게 호소했을때 감동을 받았던것이다. ▼우리들이 겁내야할 유일한 것은 恐怖 그 자체입니다—루스벨트의 이연설은 미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루스벨트는 그후 TV에 처음나간 대통령이기도했다. 라디오에이어 TV시대로접어들면서이대중매체의 영향력은 막중해지고 있다. 60년대 케네디—닉슨의 TV토론은 불꽃을 퉁겼고 TV의 힘을 실감케했다. 오늘날은 TV對決이 미국대통령선거전의 승패를 크게 좌우하는 피크를 이루게되었다.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엊그제 브레즈네프에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평화적 대결방도로 TV교환방송을 하자고 제의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역사의 잿더미로 만드는 세계적투쟁에 미국이 앞장설것을 다짐하면서『나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브레즈네프에게 미국TV방송을 통해 미국민들앞에서 연설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할것』이라고 영국의회에서 연설하자 박수갈채가 터진것이다. 레이건은 지난번 선거전에서 TV토론에 인기를 얻고 영화계출신이란 前歷도 있어 「브」와의 TV대결에 자신만만함을 보인듯하다. ▼철의장막에서 독재자로 군림하고있는 브레즈네프가 건강악화로 은퇴설까지 겹쳐있는 이때 레이건과의 TV교환연설을 수락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나 역사의 잿더미가 되어가는공산주의 옹호를위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른다. 요즘은 공산주의도 소련의붉은공산주의、중공의 누런공산주의、유럽일부 국가의 하얀공산주의로 갈라져 대립이격화되는 실정이다。內紛에 휩쓸린 공산주의가 미국의 自由奔放한 開放體制에 挑戰해봤자 승산이 없을것은 뻔하다。▼대중에게 정치의 실상을 알리기를 꺼리는 「브」가 레이건의 TV교환연설 제의를맞아 당황할 것은 더 말할나위가없겠다。文明의 총아인 TV를 재빨리 이용하는데 착안한 레이건의 이번 연설은 루스벨트의 뉴딜 연설을 능가할 시원한 일면을 길이 남길것 같다。

한국일보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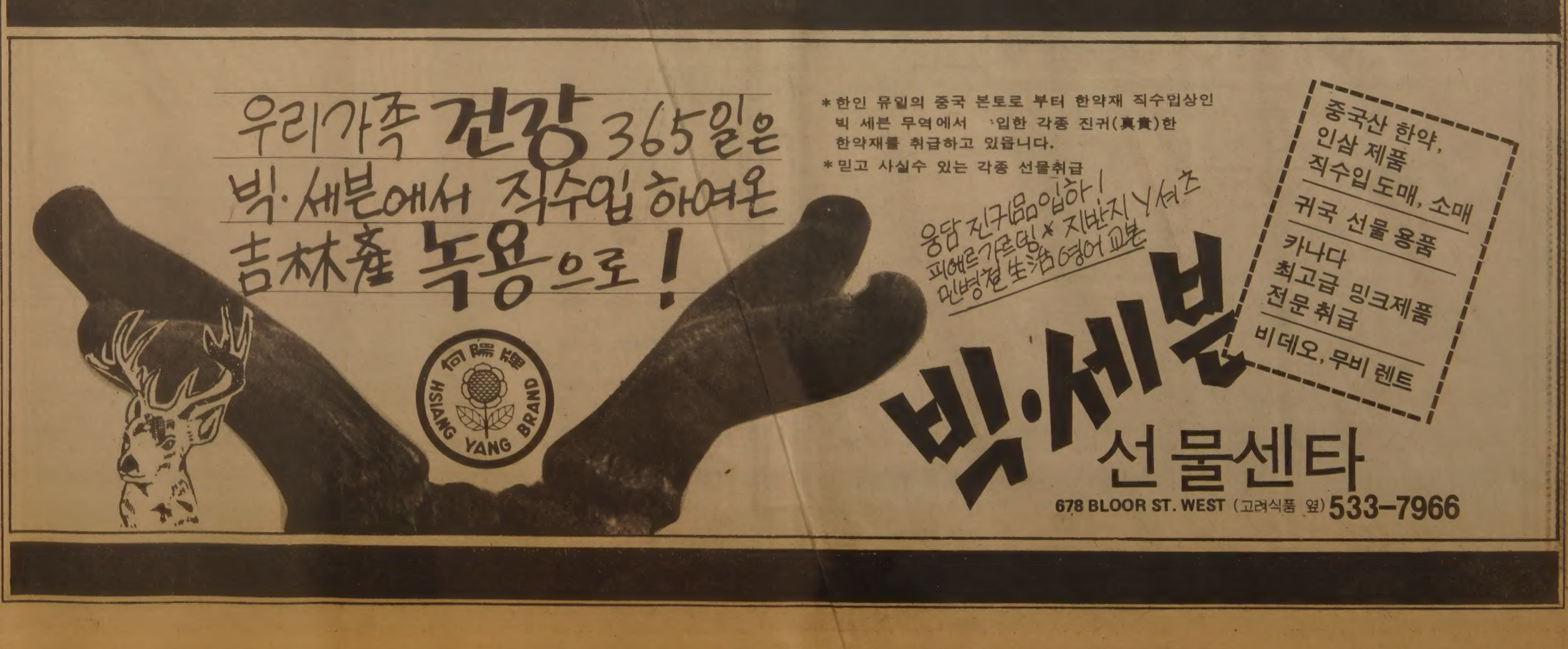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갈비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나토、核戰略 집중논의

오늘 본서 비밀頂上會談

反核소요 對應策마련

東·西긴장완화「平和文書」발표키로

◇이軍탱크사이에 白旗단 승용차 8일 레바논의 베이트에딘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軍탱크대열사이를 백기를 내세운 민간인승용차들이 끼여 지나가고있다. 【베이루트 8日UPI=聯合】

【본9日AP·UPI=聯合】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 지도자들은 10일 본에서 열릴 비밀회담에서 나토동맹국들의 核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것이라고 西獨소식통들이 밝혔다.

나토지도자들은 침략군의 군사력이 나토의 재래식군사력을 능가할경우 西方측이 核무기를 선제사용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현재의 「유연성있는 대응」 원칙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그같은 核전략은 미국과 서독이 최소한 이론상으로나마 제한핵전가능성을 인정한이래 양의 비판을 받고있다.

클라우스·뵐링 西獨정부대변인은 나토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核전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것이나 『10이나 결쳐 마련된 유연성있는 대응에 관한 합의가 급작스럽게 변경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뵐링대변인은 核전략토론이 核문제로 인해 西獨을 비롯한 西유럽국가에서 야기된 反核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토정상회담개막을 하루앞둔 이날 본과 西베를린에서는 약20만명이상의 시민들이 美國의 새 미사일 유럽배치와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위한 대규모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西方동맹국들의 단결을 과시하고 對蘇방위 전략도 재다짐할 이번 頂上회담은 지난78년이후 처음열리는 나토 頂上회담이다. 이번 頂上회담에 참석할 15개회원국 수뇌들은 또한 지난54년 西獨을 나토회원국으로 가입시킨 이래 처음으로 스페인을 16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본8日UPI=聯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오는 10일 본에서 열리는 제6차 나토정상회담개막과 더불어 80년대 東·西間 긴장완화에 목적을둔 「平和문서」를 발표할 예정인것으로 8일 알려졌다.

蘇、동남아石油路차단기도

美國防省 경고 베트남내 軍事基地 이용

【워싱턴8日UPI=聯合】 美국방성은 8일 소련은 베트남내 군사기지들을 이용, 東南亞와 동아시아의 미국맹방국들에 극히 중요시되고 있는 석유와 무역교통로의 차단을 기도하고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아미티지국방차관보는 이날 상원 東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소련의 잠재적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78년이후 베트남의 군사기지에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해온 소련은 태평양지역의 해군·공군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극동지역에 SS20중거리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련이 여러면에서 인도지나 국가들에대해 모종의 계획을 갖고있는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계획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전쟁을 계속할수 있도록하는 대규모 경제·군사원조도 포함돼있다.

록히드事件관련 하시모또前運輸相등 有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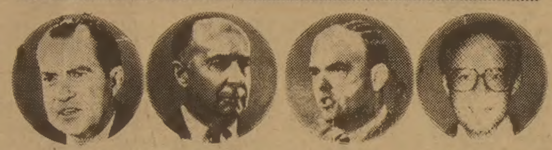
東京지방법원 집행유예3년

【東京8日=聯合】 東京지방법원은 8일 록히드사건관련혐의로 기소된 하시모또·도미사부로(81·橋本登美三郎)前운수상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또·다까유끼(54·佐藤孝行)前운수성정무차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이 뇌물로받은 5백만엔(하시모또)과 2백만엔(사또)의 벌금형을 각각 병과했다.

美 워터게이트事件 10년

主役들은 지금 무얼하나



◇닉 슨 ◇미 첼 ◇얼리크먼 ◇ 딘

回顧錄·TV출연등으로 돈방석에 닉슨

몇몇會社 고문역…변호사자격뺏겨 미첼

著書「권력의終末」서 닉슨 비난도 홀드먼

워터게이트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10년。 그러나 이 사건은 『대통령도 法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교훈을 미국사상에 생생하게 남겼다.

1972년 6월17일 새벽2시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의 민주당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만해도 아무도 이사건의 중대성을 감지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닉슨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고 20명이상을 감옥으로 보낸 소위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시발이었다.

당시 사건관련자중 52개월이상 복역한 사람은 없다. 그중에는 워터게이트사건과 자신의 역할에 관해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해 치부한 사람도 있고 닉슨의 특별보좌관 찰즈·콜슨(50)과 선거본부장였던 제프·매그루더(48)는 종교사업에 전념하고있다.

▲리처드·M·닉슨=워터게이트스캔들의 주인공였으며 대법원에의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의 공모자로 지목받았지만 그는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74년8월9일 의회의 탄핵에 직면한 그는 대통령직을 사임했으며 뒤이어 대통령을 승계한 포드의 사면으로 모든 법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닉슨은 수년간은 캘리포니아의 샌·클레멘트에서 은둔생활을 했으나 회고록을 쓰며 점차 활동적이돼 최근에는 수개국을 방문하고 TV출연을 하는가하면 집필도 계속하고있다.

그의 회고록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80년 뉴욕市로 이사했다가 다시 뉴·저지의 새들리버로 옮겨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는 다른 전직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연8만5천달러의 연방연금을 받으며 무료사무실, 비밀경호를 제공받는다. 닉슨은 자신의 저서와 TV출연으로 3백만달러이상을 번것으로 추정된다.

▲존·N·미첼=당시 닉슨선거본부장이었던 그는 위증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19개월간 복역한 후 79년1월 워터게이트 피고인들중 마지막으로 출옥했다. 유죄판결을 받으며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해 지금은 워싱턴서 몇몇회사의 고문일을 보고 있다. 현재68세. 닉슨과는 아직도 절친한 친구사이이다.

▲H·R·홀드먼=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닉슨의 가장 가까운 심복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건에 말려들었을때 닉슨이 사면해주길 거부하고 18개월간 복역하도록 함으로써 두사람의 사이는 금이 갔다.

홀드먼은 「권력의 終末」이라는 저서에서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처음부터 조종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책으로 최소한 50만달러를 벌었으며 지금은 LA에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의 부사장.

▲존·W·딘3세=닉슨의 고문변호사였던 딘은 상원청문회와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서 닉슨을 맹렬하게 비난. 4개월만 복역하고 나왔다. 그후 워터게이트에 관한 저술과 강연으로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그가 쓴 「눈먼 야망」(백악관시절)은 톡톡히 재미를 보았고 TV영화화 되었다. 그는 LA에서 라디오 TV쇼를 제작하고 있는데 물론 그가 감옥으로 보내는데 한몫을 한 前백악관 동료들과는 접촉이 없다.

▲존·D·엘리크먼=닉슨의 제2보좌관이었던 그는 변함없는 유려한 글솜씨와 유머감각으로 저술과 강연을 계속중. 백악관시절을 회고하는 「더·컴퍼니」와 「권력의 증인」에 이어 2권의 소설을 냈다. 18개월간 복역한 그도역시 변호사자격이 중지됐으며 석방된후 닉슨과 연락이 없다. 【US뉴스誌】

東쪽을 보라

아세안 2억6천만人의 새鼓動

開發손길 기다리는 잠자는 資源

특유의 樂天性으로 放置

한국의 勤勉·기술接木을

金善吉 중소기업은행장은 재치있는 농담을 잘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상공부차관으로 있을때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 아는것도 많다. 특히 나라品評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갖고 있다. 金행장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는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소개한다. 첫째 그룹은 말만 많고 일을 안하는 나라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둘째는 말없이 일만하는 그룹—한국과 대만 일본이 여기에속한다. 세째는 말도 안하고 일도 안하는 그룹— 이 그룹의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한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참석중이던 鄭春澤외환은행장은 옆자리에앉은 日本대표가 『두·유·노·PST?』(PST를 아시나요)하고 묻는 바람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총회개막연설을 기다리고 있던 鄭행장은 나중에야 PST(필리핀·스탠더드·타임)의 뜻을 알았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확하게 30분 늦게 입장해서 연설을 시작했다. 연설의 서두가 또한 걸작이었다. 『ADB창립15년째를 맞아 공교롭게도 집권15년째를 맞은 본인이…』 자신있게 또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집권15년을 말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TV에도 자주 나온다.

연속극같은 프로중간중간에 우리나라의 CM(광고) 방송처럼 불쑥 나타나 간단하게 몇마디 하고는 사라진다. 필리핀의 TV는 국무회의 광경을 내보내고 각료들의 발언까지 편집없이 생방송하고 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필리핀 국제공항에서 마닐라로 들어오는 로하스大路邊에는 서구식 고층 빌딩과 호텔들이 죽 늘어서 있는데 이 길을 달리는 택시운전사들은 연방 손짓을 하며 『저것도 이멜다여사 소유고 저것도 이멜다여사가 경영하고 있고…』하며 예사스럽게 말한다. 악의나 원망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표정이다. 『이멜다는 굉장한 사람』이란다.

필리핀 사람들은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온순하고 친절하다. 마닐라에서 만난 조(28세)라는 택시운전사가 들려준 幸福論이 필리핀 사람들의 기질을 잘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왜 일을 하나? 돈벌려고 하지. 돈은 왜 버나? 편하게 살려고 하지. 그렇다면 왜 돈 벌려고 땀흘리며 일하나. 지금 이대로도 편한데…』 필리핀 서민들은 이런 농담을 주고 받으며 자신의 가난을 위안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춥고 배고플 일이 없는 곳이 필리핀이다. 먹고 입고 잘곳은 별로 힘안들이고 해결할 수가 있다.

연중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 요즘은 33~35도다. 이런 곳에서 한국사람들처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악착스럽게 일만했다가는 命대로 사는 사람이없을 것이라고 이곳에 사는 교민들은 말하고있다.

마닐라에서 타가이타이 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반 거리. 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야자수뿐이다. 야자수 숲이 바다처럼 평원을 이루고있다. 한국사람들같으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않는 아까운 땅들이 폭양아래 졸고있다. 가도 가도 끝이없는 넓은 땅들은 그냥 버려져있고 사람들은 게으르다. 사람은 놀고 땅도 논다.

필리핀의 총면적은 30만 평방킬로. 남한의 3배가 넘는다. 인구는 4천8백만. 그러나 국토는 7천1백7개의 섬으로 나뉘어져있고 방언이 87개, 문맹률이 15%나된다.

35억톤의 동과 니켈(38억톤) 철(35억톤)등 광물과 원목과 코코넛 설탕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油田을 발견해서 채굴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아직 초보단계.

총 GNP규모는 우리나라의 절반이 좀 넘는 3백52억달러이고 1인당 GNP도 절반수준인 7백27달러에 머물고있다.

필리핀의 經濟的 長點은 자원이 많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경제적 약점은 관리능력과 기술및 자본의 부족이다.

필리핀 정부는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목수출금지등 자원보호 정책을 쓰고 人力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백방으로 애를 쓰고있다. 生活大學(유니버시티·오브·라이프)을 만들어 농촌지도자를 대량 양성해내는 한편 유휴지 개간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농촌에서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키려하고 있다.

킬루상(근면) 카우하얀(자조) 카운라랑(협동)의 머리글자를 딴 KKK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게으름과 비능률을 극복해보려고 애를 쓰고있다.

◇춥고 배고픈 것을 모르는 필리핀사람들은 매사가 낙천적이며 게으르다. 부지런한 것을 배워서 노는땅을 없애고 잘살아보자는것이 필리핀版 새마을 운동인 KKK운동의 취지다. (사진은 마닐라 시내의 과일 파는 노점상)

우리가 갖고있는 것이라고는 근면과 능률과 교육받은 우수한 人力밖에 없다는점을 생각해보면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어떤식으로 결합해야하는지 결론이 금방 나온다. 필리핀은 한국이 이룩한 경제개발의 경험을 교과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맨파워와 필리핀의 자원이 잘 결합되면 뜻밖의 성과가 나올수 있을것이라고 이곳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마닐라주재 한국대사관의 崔龍三서기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부자나라로 알아 많은 기대를 걸고있으며 특히 자본협력과기술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이런기대에 부응할 협조실적이 없어 韓比經協이 딜레머에 빠져있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말했다.

金東襄 經協官도 비료공장같은 플랜트 수출에 눈을 돌려야하는데 이분야에서 日本과 경쟁이 안되고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韓比무역은 우리쪽 入超로 올들어서 3월까지만도 1천3백만달러 적자가 났다. 무역이 오히려 퇴보하고있는 이유에 대해 필리핀은 중산층이 약해 大衆的 구매력이 약하다. 기술 자본분야는 日本과 경쟁이 안된다. 관리들의 부패와 행정난맥으로 장사하기가 어렵다는등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지적되고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것은 우리쪽의 소극적인 자세다. 필리핀이 우리한테서 뭔가 얻어보려고 애쓰고있는만큼 우리가 애쓴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많이 개선될수 있다.

필리핀의 낙후한 농촌은 한국의 농업기술과 영농기계, 남아도는 비료와 좋은짝이 될수 있다. 필리핀의 노는 땅에 부지런한 한국사람들이 진출한다면 농사는 지을수있고 집도 짓고 공장도세우고 고속도로도 만들수 있다.

필리핀의 잠자는 가능성을 우리는 깨우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가 필리핀사람들보다 더 게으르다고 하지 않을수없다.

글·사진=朴 武특파원

記者의 눈

再燃된 傭兵논쟁

네팔출신 구르카족 戰士들의 포클랜드전참전은 유엔용병문제위원회에서 이들을 국제협약으로 금지되있는 용병으로 볼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장의 개들」로 불리는 용병의 행패를 겪는등 식민지로서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유엔의 군소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편에 가담, 영국이 용병을 고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네팔의 야당과 언론들은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워 영국과의 용병고용에 관한 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구르카족을 철수시키라고 맹렬한 대정부공세를 펴고 있다.

구르카족 전사들에 대한 시비는 5월초 영국군이 포클랜드에 병력을 증파할 때 산악전에 능한 구르카용병 6백여명을 영국군속에 포함시켜 파견한데서 비롯됐다.

세계에서 가장 사납고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이들 구르카족은 2백여년 동안 영국의 용병으로 이름을 떨쳐왔다.

이들은 평균신장이 1백61㎝에 불과하나 매우 건강하며 쿠크리라는 장검을 귀신같이 쓰며 한번 칼을 뽑으면 피를 보고야마는 전통을 갖고 있다.

현재 영국군에는 약8천5백명의 구르카족 전사들이 영국군과 같은 급료로 고용돼있고 인도군대에는 7만5천명이 소속되어있다.

지난80년12월에 유엔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용병문제위원회는 비교적 잘 알려진 기구는 아니나 현재 34개국가로 구성돼있다. 이회원국들은 용병의 모집 사용 훈련등을 금지하는데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으나 용병의 개념을 정의하는데는 의견이 엇갈려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용병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된 2개사단 약3만명에 이르는 파키스탄용병들.

용병문제위원회의 소식통들은 소련이 파키스탄용병들을 예로 들어 아프가니스탄침공을 합리화하며 『중공과 파키스탄이 외국침공의 수단으로 용병들을 고용하고있다』고 역공세를 펴고 있다고 전한다.

유엔주재 아르헨티나대사 에두아르도·로카는 『국제사회는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의 후손들이 용병이 되어 식민지의 재건을 위해 투입되고있다는 사실에대해 경악하고있다』고 말한다.

전쟁중 가장 괴로운 전쟁은 같은 동족상잔이고 그다음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이용되어 피를 흘리는 전쟁일 것이다.

포클랜드주민들이 영국계라는 점에서 일제하의 우리와는 식민지의 유형에서 차이가 난다. 또 구르카족에 대해서도 정부간의 조약에의한 경우는 용병으로 분류될수 없다는 영국측 주장도 억지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식민시대의 후유증으로 우리의 국토는 양분되었으며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렀고 네팔인들은 포클랜드전쟁에 투입되는 비운을 겪고있다.

역사는 진행방향이 잘못됐을때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분단국가 한국이 특파원들을 아르헨티나에까지 파견해가면서 배우고자하는 교훈중의 하나일것이다. 【朴來富기자】

海外토픽

공처가들 단합大會

★印서마누라등쌀벗기위해

인도북부 우타르·프라데시州 칸푸르마을의 공처가들은 마누라의 등쌀을 벗어나 남성우위를 확보하기위해 남편단합대회를 열어 이채。

이들 공처가는 『약한남성』들이 겪어야하는 문제점들을 논의, 공처가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기위해 남편들을위한 대책기구를 결성했다.

공처가로 자인하는 남편들은 이기구에서 임명한 탁월한 자문관의 조언을 받아 그들의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뉴델리=AP】

黑人兵士들 質낮아

★나토國 美에減縮요청

서독을 비롯한 일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미군의 흑인비율을 줄이고 유럽의 나토기지에 배속된 흑인병사들의 숫자를 제한하도록 미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

타임즈는 한 고위국방성관리의 말을 인용, 유럽국가들이 미흑인병사들의 유럽기지 배속을 반대하는 것은 문화의 차이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나토군사지도자들은 흑인부대에 과중하게 의존하고있는 미군의 『임전태세』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뉴욕=AP】

史上최대 銀行강도

★比서 16억털고 1명은拉致

필리핀중앙은행의 레가스피지점에 강도사상 최대규모인 강도가 침입, 1천9백50만페소(한화 약16억8천만원)를 털고 인질 1명을 납치해갔다. 【마닐라=PNA】

蘇、北韓노동자雇傭

炭鑛등 人力難해소

美WP紙보도

【워싱턴3日=聯合】 소련은 인력난을 타개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을 사할린을 비롯한 극동지역의 탄광등에 고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紙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탄광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이 소련북부의 코미자치공화국에서 벌목작업을하는 수천 불가리아인 및 17~35세의 베트남인 7천명과함께 소련의 이른바 새경제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고용된 자들이라고 전했다.

巨龜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홍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 일 공 연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10억蹴球팬의 關心…「월드컵」어디로

제12회 스페인大會 앞으로 1週日

웅장한 볼의 祭典 세계가 熱狂한다

세계축구의 覇王을 상징하는 FIFA(세계축구연맹)컵은 어디로 갈까. 10억축구팬들을 열광시킬 제12회 스페인월드컵대회(6월13일~7월11일)가 한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의 젊은 축구선수들에게 무한한꿈을 주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있는 월드컵 무대. 월드컵의 웅장한 스케일은 현장서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 실감할수 없다는것이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대회를 참관했던 축구인 崔殷澤씨(前 대표팀코치)의 이야기다. 백번 듣는것보다는 한번 보는것이 낫다.

單一대회론 올림픽 능가
젊은선수들 꿈의 登龍門

축구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로 각광을받고 있는것은 보편성 때문이다. 인종, 종교, 피부색,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가는곳마다 축구를 즐기고 있다. FIFA에 가입한 나라가 UN회원국보다 많다는 사실, 직업선수를 인정하지않는 공산국가들조차 프로무대인 월드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축구의 인기를 대변해주고있다.

4년마다 한번씩 올림픽대회 중간연도에 열리는 월드컵대회는 모든 운동종목을 망라하여 단일대회로는 가장 규모가큰 스포츠제전이며 팬들의 열광도에서는 오히려 올림픽대회를 능가하고 있다.

월드컵은 스타 플레이어의 산실(產室)이다. 지역예선의 벽을 뚫은 정예들이 나라의 명예를걸고 월드컵무대에 데뷔하지만 펠레(브라질)보비·찰튼(잉글랜드) 베켄바워(서독) 크라이프(네덜란드)등 수많은 볼의 마술사들이 월드컵무대에서 발굴되어 세계적인스타로 각광을 받았다. 계절에 따라 옷이바뀌는것처럼 개인기술과 팀전술, 攻守패턴, 조직력등도 월드컵대회를 거칠때마다 눈부신 변화를 보이고있다.

이번 스페인 월드컵대회서는 어떤선수가 최고의 스타로 각광을 받게될까. FIFA컵의 向方못지않게 관심이 쏠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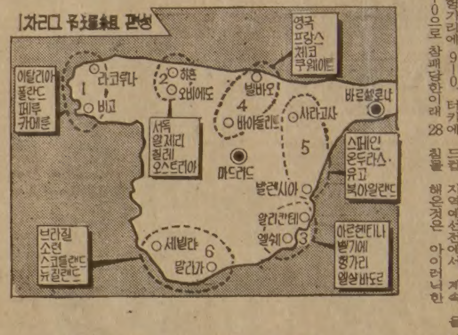
24개팀가운데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있는 나라는 월드컵 3覇의 브라질을 비롯하여 前대회 우승팀 아르헨티나, 74년 대회 우승팀이며 정교하고 과학적축구를자랑하는 西獨, 홈그라운드의 스페인, 이밖에 이탈리아, 蘇聯, 잉글랜드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도전하고 있다.

예상대로만 되지 않는것이 월드컵전쟁터이다. 스페인월드컵의 뚜껑이 열려면 초반부터 이변과 희비가 엇갈릴것이다. 월드컵을 차지하기위해 지난4년간 비오듯땀을 흘리고 각고의 노력을 해온 선수들은 냉정한 실력평가를 받은 후 다시 86년 월드컵을 향해 꿈의 行進을 시작하게 될것이다.

한국축구는 54년 스위스 월드컵대회에 한차례 출전하여 헝가리에 9—0, 터키에 7—0으로 참패당한이래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월드컵 本選의 문을 노크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서 축구강국으로 자부하고있는 한국이 월드컵 지역예선전에서 계속 질을 해온것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며 한국축구의 수치스러운 단면 이기도 하다.

이번 스페인 월드컵을 통해 한국축구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할것이다. 【安奉煥기자】



◇역대 우승팀과 전적

대회	연도	개최국	결승전전적	결승전관중	본선참가국	경기수	총득점	평균
1	1930	우루과이	우루과이 4—2 아르헨	9만	13	18	70	3·8
2	1934	이탈리아	이탈리아 2—1 체코	5만	16	17	70	4·1
3	1938	프랑스	이탈리아 4—2 헝가리	5만	15	18	84	4·6
4	1950	브라질	우루과이 2—1 브라질	20만	13	22	88	4·0
5	1954	스위스	서독 3—2 헝가리	6만	17	26	140	5·3
6	1958	스웨덴	브라질 5—2 스웨덴	5만5천	16	35	126	3·6
7	1962	칠레	브라질 3—1 체코	6만	16	32	89	2·7
8	1966	잉글랜드	잉글랜드 4—2 서독	9만7천	16	32	89	2·7
9	1970	멕시코	브라질 4—1 이탈리아	10만5천	15	32	95	2·9
10	1974	서독	서독 2—1 네덜란드	8만	16	38	97	2·5
11	1978	아르헨	아르헨 3—1 네덜란드	8만	16	38	102	2·6
12	1982	스페인	—	—	24	52	—	—

史上최대 24팀 참가
대회 進行요령과 경기방식

월드컵의 문은 바늘구멍만큼 좁다. 축구수준이 유럽·남미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에게는 지역예선돌파(본선진출)가 우승못지않은 영광이다.

첫 월드컵대회가 1930년 우루과이에서 13개국이 출전한가운데 막을올린이래 52년, 현재까지 11차례의 대회서 우승을차지한 나라는▲브라질3번▲우루과이, 이탈리아, 西獨 각 2번▲잉글랜드(英國), 아르헨티나가 각1번으로 6개국에 불과하다. 우승국의 대륙별분포역시 유럽과 남미의 우열을 판가름하기 어려울정도로 팽팽하다.

이번 스페인 월드컵대회 참가팀수는 24개팀으로 사상최대규모. 58년 스웨덴 월드컵이래 本選에 16개팀이 출전했으나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국가들의 집단압력에 FIFA가굴복, 이번대회부터 본선출전팀수를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1·2차리그서 4팀 선발
토너먼트로 準·決勝 겨뤄

대회규정에따라 前대회우승팀 아르헨티나와 대회주최국 스페인은 자동출전했고 나머지 22개 자리를놓고 지역예선을진행▲유럽13▲남미3팀▲아시아(오세아니아포함) 아프리카 북중미 각2팀을 뽑았다.

6개팀.

경기방법은 1조4개팀씩 6개組로 나뉘어 1차예선리그를 벌인후 각조상위2개팀(총12팀)이 2차리그에 진출한다. 2차리그는 4개조(1개組 3개팀씩편성)로 나뉘며, 각조 1위팀이 결선에 진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벌이게 되어있다.

경기는 스페인의 14개시 17개경기장서 분산개최된다. 6월13일부터 7월11일까지 총52게임을 치르게되는데 6월13일의 개막경기는 바르셀로나서 열리는 3組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의 대결.

◇1차리그 대진표〈6월13일~25일〉

일자	대진	조
13	아르헨티나—벨기에	3
14	이탈리아—폴란드	1
	브라질—소련	6
15	페루—카메룬	1
	헝가리—엘살바도르	3
	스코틀랜드—뉴질랜드	6
16	서독—알제리	2
	잉글랜드—프랑스	4
	스페인—온두라스	5
17	칠레—오스트리아	2
	체코—쿠웨이트	4
	유고—아일랜드	5
18	이탈리아—페루	1
	브라질—스코틀랜드	6
	아르헨티나—헝가리	3
19	폴란드—카메룬	1
	벨기에—엘살바도르	3
	소련—뉴질랜드	6
20	서독—칠레	2
	잉글랜드—체코	4
	스페인—유고	5
21	알제리—오스트리아	2
	프랑스—쿠웨이트	4
	온두라스—아일랜드	5
22	페루—폴란드	1
	벨기에—헝가리	3
	소련—스코틀랜드	6
23	이탈리아—카메룬	1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	3
	브라질—뉴질랜드	6
24	알제리—칠레	2
	프랑스—체코	4
	온두라스—유고	5
25	서독—오스트리아	2
	잉글랜드—쿠웨이트	4
	스페인—북아일랜드	5

◇2차리그 (6월28일~7월5일)

◇결승 토너먼트

▲준결승 (8일)

▲3·4위전 (10일)

▲결승전(11일·마드리드)

◇FIFA컵

우승예상 3팀의 戰力分析

브라질 個人技특출 새攻擊戰法펼듯
아르헨 78년도우승멤버 9명이健在
西獨 유럽豫選 8전8승實力과시

◇「흰펠레」지코 (브라질)

◇천만달러의다리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유럽최고의다리 루메니게 (서독)

브라질

축구왕국 브라질은 월드컵 4覇의 기적을 스페인에서 창조해낼까.

70년 멕시코 월드컵때 펠레, 자일징요, 토스타오가 연출했던 名플레이는 아직도 팬의 뇌리에 생생하다.

이미 월드컵 3覇를 달성한 브라질은 월드컵 본선에 한번도 빠지지않고 출전한 유일한 국가이며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이다.

74년 대회서 4위, 78년에 3위를 차지했던 브라질은 80년2월 텔레·산타나 감독을 새로 맞아 강화훈련을 실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축구의 나라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대표 오른쪽 윙이었던 산타나감독은 그의 팀을 꿈의 팀, 공격의 팀이라고 말한다.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마술사와 같은 정교한 볼컨트롤과 개인기를 자랑하는 브라질은 이번 대회서 맹렬한 공격 스타일을 구사할 것이다.

실력이 엇비슷한 우수선수들이 수비(DF)중반(MF)공격(FW)진에 골고루 있어 어떤 선수를 어느위치에 기용하느냐 하는 것이 감독의 고민이다. 최대의 고민은 센터·포워드를 어떤선수에 맡기는가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미드필드는 세계 최강으로 손색이 없다. 미드필드(허리)가 강하기 때문에 「공격의 팀」이 가능한것이다. 허리의 삼총사는 지코, 소크라테스, 세레조.

「하얀 펠레」의 애칭을 갖고있는 지코(28·1m72)는 아직 기량이 펠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발을 다 사용하여 득점하는 선수. 드리블이 유연하고 시야가 넓으며 체력이 뛰어나다. 최근 66게임서 48득점을 기록했다.

주장인 소크라테스(27·1m90)는 페널티 킥의명수. 경기장에서는 냉정하고 주위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선수로 정평이 나있다. 31경기서 14골. 한때 주장을 맡았던 세레조(26·1m83)는 산타나 감독으로부터 가장사랑을 받고있는 선수인데 득점력이 높지못하지만 탁월한 게임메이커.

공격진은 뛰어난 스피드의 이시도로(28·1m70)와로베르토·디나미테(27·1m82)마리오·세르히오(31·1m70)가 주축이다. 디나미테는 62골로 81년도 브라질 득점왕이였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사태속에서도 1着으로 스페인에 도착한 아르헨티나. 4년전 월드컵 정상을 정복한 아르헨티나는 타이틀방어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78년에 우승으로 이끈 멤버중 9명이 현재도 건재하다.

세자르·루이스·메노티감독은 철저하게 선수들을 훈련시키며 그가 할수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작년여름 스페인에 원정, 선수들에게 그곳의 기후와 경기장을 잘 익히도록 했다. 또 금년대회를 위해 사상처음으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금족령을 내렸다.

아르헨티나팀의 스타는 디에고·마라도나(21·1m69). 지난20년이래 이나라가 낳은 가장 우수한 슈퍼스타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차지한다면 마라도나 때문일지 모른다.

드리블의 명수일뿐만아니라 패스와 볼 운전처리 감각이 특히 뛰어나다. 단체경기에 임하는 정신도 훌륭해 아르헨티나 팀에서 새로운위치를 확보하고있다. 국제대회 출전경력 29회.

주전골키퍼는 노련한 우발도·피욜(32·1m82). 그의 경험은 세계제일이라는 명성을 갖고있다. 이밖에 호르헤·올라구인(27·1m70), 루이스·갈반(33·1m72), 주장인 다니엘·파사렐라(28·1m74), 타란티니(26·1m73)등이 두터운 성벽을 쌓게될것이다. 중반은 수비가 뛰어난 아메리코·가예고(26·1m70)와 발이빠른 후안·발바스(22·1m66)외에 디에고·마라도나(21)가가세, 자유롭게 활동하며 상대방수비의 균형을 깨뜨릴것으로 보인다. 4년전 홈그라운드에서 공격을 맡았던 마리오·켐페스(27·1m80), 다니엘·베르토니(26·1m75)가 이번대회서도 활약하게된다. 78년월드컵에서 6득점으로 최다득점을 기록했던 마리오·켐페스는 권위와 공격력이 여전하다. 라몬·디아스(22·1m71)는 79년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때 최다득점선수. 메노티감독은 1차리그에대해『첫상대인 벨기에가 무서운 라이벌이다. 헝가리는 전같지 않고 엘살바도르도 위협이 못된다』고 평했다.

西獨

『스페인에서 내 축구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싶다. 그것은 월드컵을 차지하는 것이다』(루메니게 선수)

『유럽에서 대회가열리면 다행이다. 우승이 눈앞에 보인다』(브라이트너 선수)

74년 월드컵챔피언 西獨. 제프·마이어, 베켄바워 같은 빛나는 선수들이 사라졌지만 지금의 대표팀은 74년 못지않게 짜임새있고 막강하다고 팬들은 믿고있다. 西獨은 이번 월드컵유럽예선 1組에서 8전8승을기록, 한번의패배도없이 본선에 오른 유일한 나라가되었다.

西獨대표팀의 유프·데어발감독은 우승전망에 대해『브라질과 홈팀인 스페인이 우리의 적수』라고 전망하고 실력의 1백%를 발휘하면 우승할수 있다고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있다.

西獨대표팀이 월드컵에 대비한 강화훈련에 들어간지는 최근이며 지난5월 포르투갈·노르웨이와의경기에서 부진한 플레이를연출, 문제점을 보이기도했지만 데어발 감독은 대표선수들이 분데스리가경기서 좋은 컨디션을유지해 왔기때문에 팀워크만 다듬으면 문제될것이없다는 느긋한 태도. 최종의 진용을 구축하고있다. 주장이자 지난 2년간 유럽 최우수선수상을받은 칼·하인츠·루메니게(26·1m82·74kg)를 빼놓을수 없다. 국제대회 39회출전의 루메니게는 빠르고 판단력이민첩하고 드리블이좋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장신 후르베시(30·1m88·80kg)와함께 골게터로 지목되고있다. 부상으로 4주간 쉬다가 대표팀에 복귀했다. 단신의 예리트·바르스키(21·1m68·64kg)는 오른쪽 날개로 주목을 모으고 있으며 노장 크라우스·피셔(32·1m88·80kg)·23살의신예 프랑크·밀(1m76·75kg)도 공격진서 한몫을 하게될것으로 보인다. 키가큰 선수들이 많아 공중전에 강하다.

미드필드의 주축선수는 대표팀에 7년만에 복귀한 파울·브라이트너(30·1m76·73kg)로 소속팀 바이에른·뮌헨서 루메니게와콤비를 이루고있는데 配球에 능한 유능한선수이다. 이밖에 볼프강·드레믈러(27·1m78·73kg) 한스·뮐러(24·1m80·77kg)·펠릭스·마가트(28·1m77·74kg)등이 중반에서 일을치르게될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⑬

그때는 진한 화장때문에 그렇게 보였거나 와 지금은 화장이 싸구려 취처럼 들고일어나 진짜 살갗이 군데군데 반점처럼 드러났는 모두가지였다. 늙었다기보다는황폐한 춘자의 어떤 얼굴이 측은해서 오목이는 한숨을 삼켰다.

춘자는 입으로는 오목이를 구박했다가 곰살궂게 굴었다가 변덕이 죽 끓듯했지만 속마음은 한결같이 정이 깊고 따뜻하다는걸 오목이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신세 지기가 미안했다.

짤막한 손가락에 어울리지 않게 길고 날카롭게 다듬은 새빨간 손톱사이로 다 타들어간 담배를 춘자는 필터까지 태울듯이 푹푹 빨아댔다. 그럴때마다 꿈틀대는 시든 목을 오목이는 목 건드리면 터질 둑 바라보듯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바라보았다.

춘자는 말의 홍수가 터지기 직전엔 으레 그렇게 담배를 탐했다. 오목이는 그게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신호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미연에 방지할수있을까해서 허둥지둥 먼저 말을 시켰다.

『춘자야 제발 밥값을 받아. 그러면 내가 좀 덜 미안하잖아. 나도 돈 많다니. 취직만 되면 나도 따로 방얻어 나가든지 너만 좋다면 이대로 죽같이 살든지』

『언니가 밥짓고, 빨래하고 그 더러운 그릇들을 다 윤을 내놓았는데 뭐하러 밥값을 내? 언니 오고나서 난 공주님 부럽지 않아. 아이들이 다 나 살 쪘대. 언니 오늘 아침 반찬 뭐야? 인젠 라면만 먹곤 죽어도 못살겠으니 어떡하지? 언니』

『죽잖으면 살기지 죽어도 못살겠단 소리가 어딨어? 자아,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럼 내가 당분간 네 식모로 취직한 셈만 치랴?』

『언니 돌았어? 내 주제에 식모를 두게. 어서 밥이나 가져와요. 남 화롯구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찌찌 지말꾸. 언니만 보면 화다봐요? 눈엔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언니 속알며지 뻔하지 뭐, 내가 밥이 아까워서 화가 나고 언니 구박하는 줄 알지? 그게 아니우. 난 언니가 그 좋은집 양딸 노릇을 박차고 야밤도주한 까닭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에서 불이 난다니까. 오(吳)가면 어떻구, 최가면 어떠우? 오목이가 최 오목이되는게 싫어서 그 집을나왔다니 말도 안돼.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언니가 오가인전 확실하다우?우리 고아들 성을 누가 믿어주기나 한다구. 헌다 헌양반, 애국지사 뭐 그런사람들도 일제땐 일본성을 너도 나도 따르면서 목숨보전도하고 권세까지 누렸다며?성을 갈겠다는 맹세도 그때부터 웃기는 얘기가 되고만거지. 그런데 언니가 무슨 오씨 가문의 시조(始祖)라도 된다고 그 잘난 성을 붙들고 늘어지느라 꿀 조오시다. 인생 밑바닥까지 흘러간 이 춘자의 몸종노릇이라도 하겠다니……』

『그만 해둬. 아침 먹자』

오목이가 발딱 일어나면서 말을 잘랐다. 벌써 몇번째 들은 소린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도 끝까지 들은 적이 없었다. 그 얘기만 나오면 춘자는 무진장 말이 많아졌다.

『아유 맹꽁이, 저 맹꽁이 때메 나까지 정신이 돌아버릴거야. 마음 독하게 먹고 저 맹꽁이를 내놓아 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푸념을 들으면서 오목이는 부엌으로 나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流星의 賦 〈40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③

사령(朔寧)전투도 화제에 올랐다.

『경기의 심대감사(沈岱監司)는 참으로 애석한 사람이야』

하고 권율이 시작했다.

심대는 그 문행(文行)이나 충신(忠信)이 출중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너무믿었던 탓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심대는 경기감사로서의 임명을 받고 양성현감 윤경원, 병조좌랑 강수남, 종사관 양지와 동조하여 임지로가는 도중 곳곳에서 군사를 모아 그 수가 꽤나 부풀어있었다.

연천군경에 이르러선 적과 조우하여 불시의 전투가 있기는 했으나 합신복력,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심대는 삭령에 임시로 감영(監營)을 두기로했다. 이천, 여주, 강화도를 제외하곤 경기도 일대가 적의 유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심대가 삭령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기뻐 날뛰었다. 그 도임하는 위의가 삼현육각(三絃六角)을 갖춘 당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심대는 군사를 모집하고 군기를 점검하는 한편 한성의 정세를 파악하여 한성공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럴무렵 성여해(成汝諧)란 자가 감영을 찾아와서 군관이 되겠다고 간청했다. 성여해는 자기의 누이동생을 적장에게 첩(妾)으로 바쳐놓고 적의 간첩노릇을 하고있는 자였다. 이런사정을 알까닭이없는 심대는 청하는대로 성여해를 군관에 임명했다.

당시 적장 이동우평(伊東祐平)은 철원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반민들에게 감영의 모병에 응모하라고선동했다. 감영에서 이들을 모두 군사로서 채용했다. 이들음 적의 상황을 탐지하겠다, 군기를 훔쳐오겠다고 핑계하여 삭령과 한성사이를 자유로이 왕래하며 적의 이목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대는 9월22일에 있었던 하유(下諭)를 실행할작정으로 개성유수 이정형, 경기순찰사 성영, 강화도의병장 김천일(金千鎰)등에게 각각 군사를 장악케하여동서로 한성을 협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심대 자신은 성여해를 비롯한 왜적의 간첩들로 구성된 군사들을 지휘하기로 했다.

간첩들의 보고에의해 삭령 감영의 사정을 잘 알고있는 왜적은 「감사는 연일의 피로에 지쳐 감영에 누워있다」는 보고를 받자, 10월17일, 이동(伊東)이 직접 부하5백명을 데리고 철원을 출발하여 임진강 상류를 건너 삭령군수 장지성의 부대를 기습했다. 장지성은 삭령 감영에 보고도 하지못한채 도주해 버렸다.

삭령 감영에선 경호하고 있는 놈들이 모두 간첩인줄도 모르고 있었던터라 갑자기 들이닥친 왜적의 공격을 물리칠수가 없었다. 병석에 있던 심대가 밖으로 나와보니 윤경원은 장창으로, 강수남과 양지는 큰 칼을 쥐고 적과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인천부자 윤건이 달려와서 감사더러 피하라고했다. 감사는 않는 몸을 서서히 움직여 객사뒤 은행나무밑에 자약하게 앉아 독전하다가 이윽고 적의 화살을맞고 죽었다. 사령의 전부는 한마디로 동족이 동족을 속인 참극이었다.

『심대는 착한 어른이었소』

하고 권율은 왜적에게 붙은 놈들의 처단엔 가차없어야할 것이라고 흥분했다. 홍계남도동감이었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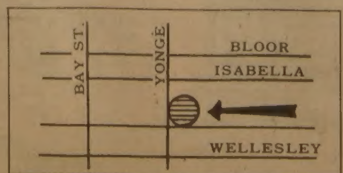
江戶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교민여러분께

알립니다

일부 지상에 이미 공고된바 있는 저희 거구장의 6월14일 폐업 예정은 교민들의 열렬한 격려와 성원속에다 시한번 열심히 해 볼것을 결심, 그대로 운영될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배전의 편달과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982년6월11일

거구장 대표

이한영 올림

☎ : 742—1618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HOLE SALER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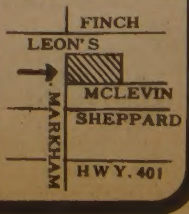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목타는 南部

嶺南·湖南일부 가뭄 심각

降雨量 例年의 절반도 안돼

곳곳서 貯水池 바닥 물소동

13·14일 단비…下旬 解渴예보

【한해지역이동취재부=鄭永鎬기자】 올해도 모내기철 가뭄이 심하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가운데 영남지역과 호남해안및 산간지방에는 지난 봄부터 계속된 가뭄이 해소되지 않아 심한 농업용수난을 겪고있으며 光州와 木浦등 일부도시에서는 식수까지달려 격일제급수를 하고있다. 전국에서 가뭄이 가장심한지역은 경북蔚珍·盈德·迎日·金陵지역과 전남海南·新安지역인데 이지역의 강수량은 예년보다 70~1백59㎜가 적은 1백68~2백78㎜에 불과하고 저수량도 평년보다 6~31%가 부족한 35~58%밖에안돼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木浦·光州등 食水難까지

경북지방의경우 9일 현재 강수량이 예년평균 4백28·9㎜의 절반을 밑도는 1백77·6㎜로 도내 5천6백58개 저수지 가운데 94개가 이미 고갈상태에 있으며 곳곳의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이달내로 비가 안올경우 벼농사에 큰타격을 예상, 한해 우심지역의 지하수 관정 굴착등에 도비 5천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농수산부에 한해대책자금 20억원과 양수장비등을 긴급지원 요청했다.

한편 경남북지방의 일부지역에서 모내기를 제대로 할수없게되자 산업기지 개발공사 安東댐관리사무소는 8일부터 보조댐수문3개를 열어 초당1백톤씩 물을 방류하고 있다.

전남의 海南·新安·靈岩·康津등 남부해안지방도 예년보다 강수량이 70~1백59㎜부족한 1백68~2백78㎜밖에 안돼 1주일내에 비가오지않으면 천수답은 모내기를 포기해야할 정도다.

또 전북도는 평야지대를 제외한 南原·長水·任實등 산간지역 1천7백ha의 천수답이 적기모내기를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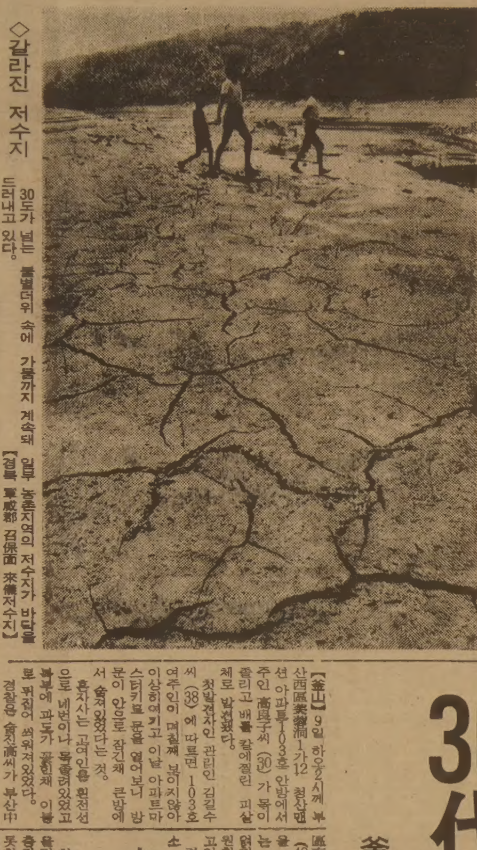
한편 동자부는 慶北지역의 가뭄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가뭄 해소때까지 양수기사용 전력에대해주택용대신농사용 전력요금을적용하도록했다.

동자부는 또 양수용 전력사용을 신청하는농가에는 우선 전기를 공급하고 서면절차는 사후에 정리토록했으며 기술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전에 지시했다.

공사용 전력요금은 가정용보다 3분의1정도로싼데 주택용 전력요금은 ㎾/H당78원34전이고 농사용 전력요금은 ㎾/H당 28원39전이다.

週末까지 더위계속

중앙기상대는 9일 전국이 28~33도에 이르는 한낮의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13~14일께 남부지방에 한차례 비가와 더위는 한풀 꺾이겠으나 가뭄은 장마철에 접어드는 이달하순께에야 완전히 해소되겠다고내다봤다.



◇갈라진 저수지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 가뭄까지 계속돼 일부 농촌지역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 軍威郡 召保面 來儀저수지】

大學병원 醫師 대폭 늘려라

國立 모두 法人化 서비스向上

문교부지시

藥師委 운영개선 「약품不正」 방지

문교부는 9일 전국대학병원장회의를 소집,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위해 의사의수를 대폭늘리도록 지시하는한편 전국의국립대학병원을 모두 법인화시키기로했다.

전국의 6개 국립대학, 16개 사립대학등 22개 대학병원장및 사무국장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또 큰 폐단의 하나였던 약품관리운영을 정상화시키기위해 지금까지 의사중심으로 구성된약사위원회에 반드시 약학계전문가 3분의1이상을 참여시키는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또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약품선정이나 구입때 약품명을 기재하지말고 성분만 명시하여 특정회사약품에 특혜를주는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위해 병원측은 약품수불대장과 검수과정을 철저히 지켜보라고 당부했다.

문교부는 국립및 사립대학병원의 운영목적이 영리보다는 교육및 연구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봐 시설과 의사의질이 일반병원보다 훨씬 앞서있어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진료서비스면도 등한시 할수없다고 지적,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의사들의증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지금까지 상오에만 국한했던 진료시간을 하오까지 연장하고진료의사를 소속대학의 교원에만 국한하지말고 일반의사들도 채용할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99%가 현직교수이며다른국·사립대학병원의 의사들도 전원 소속대학의 교원으로 진료의사들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다.

문교부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을 예로들어 대학병원이법인화되어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면 마음대로 직원을채용할수있는 잇점이있다고 지적하고 병원운영의경직성을탈피,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위해서도 법인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립 대학병원이 법인화되고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나 예산의 압박을 받지만 진료시간을 늘릴경우 자연히 병원 수입도 늘어나게 되므로 인건비문제는 해결된다고 이관계자는 덧붙였다.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은 6개이지만서울대병원을제외하고는 모두가 법인화돼 있지않다.

문교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앞으로법인화하더라도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은 보장할것이므로 동요되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李·張부부사건관련 변호인選任 밝혀져

李哲熙·張玲子부부의 어음사기사건관련 피고인 29명(구속28·불구속1)에게 9일까지 모두 25명의 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러나 李圭光·李鍛華·宋正光피고인등 3명은 이날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피고인별 변호사는 다음과같다.

▲李哲熙·張玲子=文相翼 ▲林在壽=李範烈 ▲孔德鍾=金聖在 ▲邊康雨피고인등 共榮토건관련자 4명=金一斗·金東煥 ▲朱昌均=金東煥 ▲裵吉勳=趙鍈一·金東煥 ▲李斗淳=金仁燮 ▲徐斗寅=朱鎭鶴·金正琪 ▲金重壽=黃石淵 ▲金洙鎬=林采洪 ▲田永采=金昌國 ▲郭慶培=安東洙·申雄湜·許亨九 ▲金鍾茂=洪一源·金公植 ▲張東浩=金尙哲 ▲趙祥弼=姜海龍 ▲金濟振=張秉哲 ▲尹錫錄=金昌國 ▲金正一=鄭德均 ▲任文淳=任斗彬 ▲金勇男=徐建翊 ▲金守哲=郝台求 ▲徐香蓮=李在權

3男妹 의문의 變死

안방서자다 外傷없이 목졸린 흔적

【大邱】 9일상오5시50분께 대구시東區율하동51 유진호씨(41·자동차정비공)집 아랫방에서 잠자던 유씨의 장녀 봉순양(16·경북대사대부고1년) 장남 영일군(13·안심중2년) 차남 영대군(12·안일국교6년)등 일가족 3남매가 목졸린 흔적이 있는채 숨져있는것을 아버지 유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아이들을 깨워 밥을 짓도록 하기위해 3남매가 자고있는 아랫방문을 열어보니 3남매가 나란히 엎드린채 숨져있었다는것.

이들 3남매는 목졸린 흔적만 남아있을뿐 다른 외상은 없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위해 인근 안심순천의원 의사 이재규씨에게 사체검인을 의뢰했다.

이들 3남매는 8일밤11시께 아랫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으며 아버지유씨는 평소와같이 큰방에서잠을잤다는것.

숨진 3남매의 어머니 손모씨(38)는 가정불화로 약1개월전 가출했다는데 경찰은 동부경찰서 용계지서에 수사본부를 설치, 범인수사에 나섰다. 【聯合】

個人택시 免許내줄때 모범운전사 우대

교통부는 9일 개인택시면허를 내줄때 모범운전자를우선순위에 반영시키는것을 강화하도록 각시 도에 시달했다.

시달내용에 따르면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로 81년도 내무장관으로부터 무사고永年標示章을 받은사람은 관할경찰국장의 추천을받아 제2순위로 ▲7년이상 계속모범운전자로 근속하고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으면 제3순위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하고 사업용 자동차 3년이상 무사고일 경우는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제4순위로 배정해주도록했다.

本社 創刊28돌 어제 기념식

百想기자大賞·공로대상등 시상

한국일보社는 창간 28주년을맞아 9일상오10시 본사12층강당에서 張康在회장을 비롯한 4백여명의社友가 참석한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서는 故張基榮사주의 창업정신을 기리기위해 제정한 제1회百想기자대상과 百想공로대상이 시상되었는데 기자대상부문은 편집국 사회부 鄭在龍기자 (금상)등 6명이, 공로대상부문은 공무국 朴海元부장대우(금상)등 7명이 각각 받았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근속사원 35명에게 금반지와 금배지가 전달되었으며 그밖에 다수의 유공사원과 우

30代 獨身女 피살

釜山 아파트서 목졸리고 칼찔려

【釜山】 9일 하오2시께 부산西區棠甘洞 1가12 청산맨션아파트103호 안방에서 주인 高貝子씨(30)가 목이 졸리고 배를 칼에찔린 피살체로 발견됐다.

첫발견자인 관리인 김길수씨(38)에 따르면 103호 여주인이 며칠째 보이지않아 이상히여기고 이날 아파트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보니 방문이 안으로 잠긴채 큰방에서 숨져있었다는 것.

혼자사는 고씨는 흰전선으로 네번이나 목졸려있었고 복부에 과도가 꽂힌채 이불로 뒤집어 씌워져있었다.

경찰은 숨진 高씨가 부산中區南浦洞 J재료사주인 C씨(49)의 내연의처로 많은돈을 갖고 사채놀이를하고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치정에 얽힌 살인이나 사채에관련된 원한관계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또 숨진 高씨가 평소 소지하고있던 백금다이어반지와 황금색 손목시계및현금이나 값나가는 물건등이 없어진점으로 봐 강도범에의한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高씨의 사망시간은 7일하오10시부터 8일새벽 사이로 추정되며 高씨의 몸에서는체액이 발견됐다. 【聯】

5살 바다표범 사로잡아

高城앞바다, 몸길이 1m

【束草】 8일상오9시께 江原高城郡 竹旺面 加津里앞 1천m해상에 金相泰씨(47)가 쳐놓았던 정치망에 바다표범 한마리(사진)가 사로잡혔다.

몸길이 1m에 5년생쯤되는 이 바다표범은 金씨가 전날밤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것을 이날 상오 그물을 걷으러 나간 광명호(7·79톤)어부들에의해산채로잡혔다.

金씨는 이 바다표범을 광명호 중간 선창에 가두어 놓고 있는데 동물원에 기증할 것인지 다시 바다로 돌려 보낼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聯】

근무시간에 노름 警官4명 파면

서울永登浦경찰서는 9일 정보과 尹昌業경장(42) 金泫學순경(44) 羅元一순경(42) 대공과 郭定錫순경(37)등 4명을 파면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30일 낮1시께 근무시간인데도 永登浦경찰서앞 Y여관 내실에서 화투를 치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었다.

시외버스 3명令狀 3명수배 소매치기

【釜山】 부산 東萊경찰서는 9일 서부경남시외버스를 무대로 소매치기를 해온 경주파 일당 이병주(26·晋州市蓬萊洞84) 김종수씨(33·晋州市玉峰南洞665)등3명을 상습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유모씨(30·진주시)등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주교도소에서 알게돼 지난2월 출소한뒤 소매치기단을조직, 지난 5월18일 하오6시30분께 부산발 진주행 시외버스안에서 승객 이홍승씨(52·晋州市仁寺洞145)의 안주머니에있던 1백8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소매치기하는등 그동안 부산을 기점으로 晋州·三千浦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무대로 40여차례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상당의 금품을 소매치기한 혐의다. 【聯】

3母女피살사건 現場검증

住民 怒聲속 犯行재연

서울西大門區冷泉洞 3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金永泰(23)와 丁錫範(28)에 대한 현장검증이 9일 상오10시부터 서울지검 盧玉基검사 지휘로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李씨집 응접실 소파에서 숨진 李君子씨(39)와 나란히 앉아 참외를 대접받으며 TV를보던 범인들이 李씨가 조는 틈을 타 丁이 수건으로 李씨의 입을막고 金이 손도끼로 머리를 내리치는데서 시작, 3남매를 차례로 희생시킨뒤 집안을 뒤져 금품을 털어 집을 빠져나와 西大門區忠正路 화양극장앞에 세워두었던 포니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까지 1시간15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범인들은 순순히 범행을 재연했는데 주범 金은 때때로 고개를 숙이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으나 경찰이 살해장면을 반복해 재연하라고 지시하자 짜증을내기도했다.

警官2명 特進상신

한편 경찰은 이사건해결에 공을세운 西大門경찰서 형사계 6반장 黃權重경위(44)·李八奉순경(43)등 2명의 1계급 특진을 상신했다.

延大生 4명입건 校內서 시위선동

서울西大門경찰서는 9일 延世大 尹平鎬(22·사회학과4) 韓民虎(22·경영학과4) 金炯均군(21·응용통계학과3년 휴학중) 李相娥양(22·독문과4년)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8일낮 12시25분께 延世大 도서관 5층옥상과 대강당옥상에서 반정부유인물 1백여장을 뿌리며 학생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高大, 夜間행사금지 「예수전」 無期연기

高麗大는 9일 교내야간행사를 금지하기로 결정, 오는 14일 열릴예정이던 민속학연구회 주제 「예수전」을 무기연기토록했다.

保安法위반 延大生 3명 原審확정

대법원형사부는 9일 張信煥(25·延世大기계공학과제적)·李聖河(25·〃신학과 졸업)·金致杰(24·〃법학과 4년제적)피고인등 延世大학생 3명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張·李피고인에게 징역7년·자격정지7년, 金피고인에게 징역5년·자격정지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재판이 계류중 전新民黨당수 兪鎭午박사, 延世大명예총장 白樂濬박사, 현보사부장관 金正禮씨등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지난4월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진정을 내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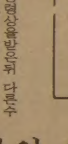
望夫畵

個人展갖는 서양화가 朴京蘭씨

죽은 남편과의 密語를 畵幅속에…

서양화가 朴京蘭씨(33·사진)가 水踰中교사)에게는 16일부터 서울진화랑에서 갖는 개인전이 죽은 남편과의 만남을 뜻한다. 지난5년간 남편의 무덤가에서, 꿈속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를 화폭에 담아 畵題도 전부 (35점) 「精靈」 이라 붙였다.

朴교사의 남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37세에 요절한 서양화가 朴吉雄씨. 그는 지난69년 제18회국전에서 「흔적—白75」란 비구상작품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재능있는 화가 였다. 29세 젊은나이에 비구상작품으로 최고의 상을 따낼수 있었던것은 그당시로는 놀라운 일이었다.



朴씨는 대통령상을받은뒤 다른수상자들과는 다르게 고집스러운 자기길을 걸었다. 사회와의 타협을거부했다. 주때경기에 따라 미술계가 한창 흥청거릴때도 자신과는 관계없다는듯 고고하게 화폭에 영혼을 불살랐다. 이러한 그의 고집은 전방지다는 욕도 불렀고, 화폭에 지나치게 매달린것이 과로가 돼 건강을 잃은끝에 77년11월 부인 朴교사의 곁을 영영 떠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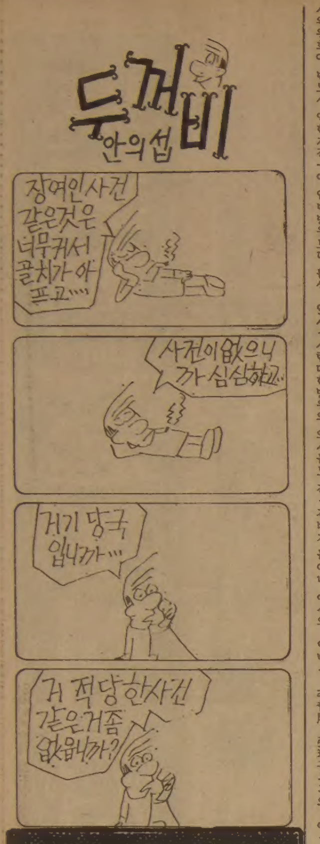
결혼 2년만에 한살난 딸 承里양을 안고 남편을 잃은 朴교사의 충격은 말할수 없었다.

같이 서양화의 길을 걷던 朴교사 부부가 결혼한 것은 75년이었다. 두 사람은 당시 朴吉雄씨가 「대화」시리즈란 주제로 10회개인전을 갖고 있던 양지화랑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었다.

결혼후 朴교사는 남편의 예술을 위해 붓을 놓았다. 어려운 살림에 두사람 다 붓을 잡을수는 없었다. 朴교사는 생활을 이끌었고 朴吉雄씨는 못다한 아내의 꿈까지 이루려는듯 무섭게 그림에 매달렸던 것이 나 부부의 집념은 2년만에 꺼져버렸다.

남편을 잃은 朴교사는 텅빈마음을 메우려 일요일이면 딸을안고 城南 남서울공원묘지에 잠들어 있는 남편의 곁으로 달려갔다. 1년동안 거르지않고 찾아가 無言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는 동안 「무언의 대화」보다는 화폭를통한 대화가 화가부부로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들어 오랫동안 놓았던 붓을 다시잡았다. 그리고 한점한점 작품을 이루어 나갔다.

『그이와 대화를나누며 작품을해나갈때는 모든것을 잊을수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전시회를 갖자니 무언가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군요』 요즘은 원고지속에 남편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朴교사. 그녀의전시회가 기다려진다. 【李炳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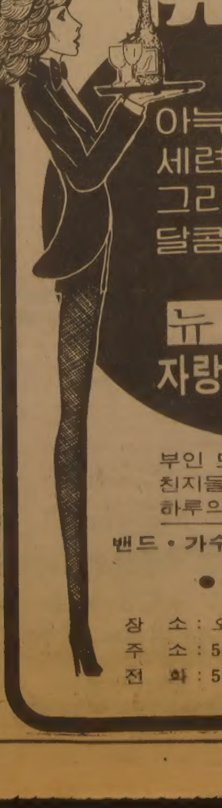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넷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吳錫載再起、2게임서 3골

대통령杯 축구 할렐루야、難敵 말聯 꺾어 1-0

【大邱=安奉煥기자】 吳錫載가 오랜 슬럼프의 늪에서 탈출、득점기계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할렐루야는 8일저녁 大邱시민운동장서 벌어진 제12회 대통령배쟁탈 국제축구대회4일째 B조경기에서 전반15분 FW吳錫載의결승골로 말레이지아를 1-0으로 제압、1승1무로 순탄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할렐루야는 10일 저녁 釜山서 西獨의 레버쿠젠과 B조 3번째 경기를 벌인다.

이날 브라질의 오페라리오는 泰國과 맞서 후반18분 산토스·리마의 득점으로 1-0으로 승리、할렐루야와 함께 1승1무를 기록했다.

李榮武등 할렐루야 일부선수들의 자퇴소동으로 할렐루야에 임시보강된 장신 吳錫載는 이번대회 2게임서 3골을넣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할렐루야는당초예선관문돌파가 어렵지않을까 전망되었으나 신임 咸興哲감독의뛰어난 용병술과 보강선수들의 분전、黃在萬 洪性號를 비롯한 기성 멤버들의 패기넘친 플레이로 결승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할렐루야는 전반15분 FW 李正日이 金正熙의 도움을받아 강슛、볼이 오른쪽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오자 吳錫載가 다시 슛、결승골을뽑았다. 吳錫載는 후반 7분、11분、16분 3차례에걸쳐 완전한 득점기회를가졌으나 노장 GK 아르무감의 선방으로 골을 추가하지 못했다.

◇제4일전적

할렐루야 1 (1-0 0-0) 0 말레이지아

오페라리오 1 (0-0 1-0) 0 태국

◇헤딩·슛시도 할렐루야에 임시보강된 吳錫載 (중의右)가 9일 말레이지아와의경기서 헤딩 슛을 시도하고있다. 【大邱=金龍逸기자】

19세의 高校生 打率 7할9푼

美제퍼슨高유격수「던스턴」、프로野球 시카고컵스 계약

올시즌 盜壘도 37차례…百%성공 打席서 1壘까지 달리는데 3초7

海外스포츠

82년 美國프로야구의 아마추어선수드래프트에서 19세의 토머스·제퍼슨 고교(브루클린) 유격수 샤원·던스턴이 8일 시카고 컵스에의해 1번으로 지명、계약되었다.

던스턴은 금년시즌 경이적인 7할9푼의 타율을보였으며、37차례의 도루를 시도하여 1백%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타석에서 부터 1루까지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7이다.

『말할수도 없이 기쁩니다. 다른선수들을 제쳐놓고 왜 나를 1번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읍니다』

맨해턴의 커미셔너사무실에서 전화로 컵스로부터의 지명소식을 들은 던스턴이 반신반의하자 시카고 컵스의 스카우터 고든·골즈베[illegible]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던스턴은 가장 촉망되는 선수다. 그는 누구보다 잘 달리고 잘치고 잘 던진다. 3~4년내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할수 있을것이다』

던스턴은 금년시즌 유격수로 옮기전까지 3년동안 3루수로 활약했다. 고교 첫타석에서 홈런을 날린 그는 4년동안 25개의 홈런을 기록. 1학년때의 타율은 3할8푼、2학년때는 4할2푼、3학년때는 4할5푼、4학년인 지금은 7할9푼으로 올랐다.

전화로 진행된 이 드래프트에서 2번째 지명권을 가진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역시 유격수인 뉴올리언즈대학의 오거스트·슈미트를 뽑았다.

이번 드래프트에선 유격수에대한 기호가 높아 던스턴、슈미트외에도 4명의 유격수가 1차드래프트에서 각팀에 뽑혀갔다.

또한 금년시즌 16승2패의 브라이언·헬커스(위치타주립대학)가 미네소타 트윈즈에 뽑히는등 12명의 투수가 1차드래프트에서 선발됐다. 프로26개구단이 1·2차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한 아마추어선수는 모두 54명. 【外紙에서】

해글러·헌즈戰취소

【뉴욕8日聯=聯】 오는7월15일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복싱 세계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와 도전자 토머스·헌즈간의 타이틀 매치는 완전 취소됐다고 흥행사 보브·애럼씨가 8일 발표했다.

日女子排球、蘇꺾어

【東京支社】 日本여자배구대표팀은 8일 기다미서 벌어진 친선경기에서 蘇聯여자대표팀에 3-0 (15-8、15-7、15-8)으로 완승、3연승을 기록했다.

日·蘇 양국은 총 6차전을 벌인다.

한국、準決진출 파닌컵籠球

【메단(인니)8일=聯】 인도네시아 제6회 파닌컵농구대회에 출전한 한국팀은 8일 美國 필리핀 泰國과함께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팀은 7일밤 인도네시아의 케디리팀과 가진 경기에서 98-67로 승리、B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金鎭雨 홈런 朴魯俊 적시타

韓·中·日 친선 국제야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대학선발팀은 8일 自由中國 高雄서 열린 2차전에서 金鎭雨의 솔로홈런과 朴魯俊의 적시타등으로 日本전기전업팀을 2-0으로 꺾고 1승1패를 기록했다고 선수단이 9일 야구협회에 알려왔다.

◇전 적

日本전기전업	000	000	000	0
한국대학선발	010	001	00×	2

▲홈런=金鎭雨(2회·솔로)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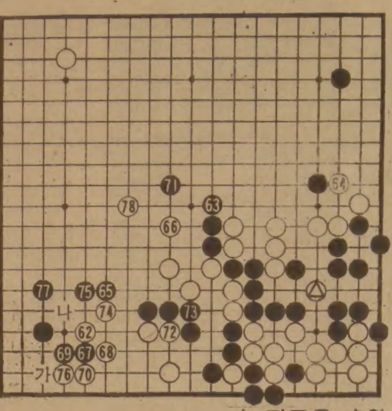
위 급 : 911 전화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7譜 62~78 (각5시간·덤5집반)

白 (挑戰者) 徐奉洙

黑 (名人) 曺薰鉉



白、괴로운 守勢

우변에서 黑馬공격을 실패한 도전자는 몹시 마땅찮은듯『연구부족이야』하고 심각하게 혼자뇌었다. 모처럼 젖혀본 △표가 선수도 급소도 안되고 보태준 결과일뿐아니라 장차 白64의 손질이 필요하니 무엇보다 부지가 꺾일 염려마저있다.

14분동안이나 정신을 가다듬고 택한것이 白62다. 그리고보니 하변에서 개시된 접전이 우변으로 번진끝에 다시 좌하귀로 발전한 셈이다. 위쪽 두귀는 언제 착수하려는지.

黑63이 기민한 호착이었다. 그렇다면『白62론 63자리를 먼저젖힌다음 62와 64를 맞보는것도 일책』이라는 국후중론이 설득력이 강할것같다.

白64를본 名人은 21분간 수를읽어보고 黑65로 白66을 강요하더니 67로 기습을 가한다. 이렇게 되면 白은 중앙과 하변을 수습하기가 급하다.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꼴에서 白68、70은 이 부득이한 응변책이었으나 黑71의 요충을 맞기자 더욱더 난처해졌다.

이에이르러 도전자는 일단 중앙을 버릴작전으로 白72이하76。 때는어느새 하오5시。 비는 간신히 멎었지만 먹구름에덮인 창밖하늘이 어둠을 재촉한다.

『黑77로「가」의곳을 막으면 白「나」로서 일이 까다롭다』는 趙8단의 해설。 따라서 白은78로 혈로를 뚫게되었지만 여전한 수세로 괴롭기만하다。 기대되는것은 인내후에 생기는반격의 기회이다. 【一凡】

〃王位戰 돌연 無期연기〃

曺名人에게 場所변경 안알려

大學 春季연맹전 成大팀우승

19·20일 한국棋院서 女性바둑대회

바둑소식

○…曺薰鉉名人의天下再統一여부가걸린제16기王位戰도전7번기 제4국이 예정일인 8일에서 무기연기되었다. 한국기원측은 며칠전 이대국의 장소를 크라운호텔로 변경한 뒤 徐王位에게는 통고했으나, 도전자인 曺名人에게는 알려주지않았다. 曺名人은 대국하루전날까지 한국기원으로 대국장소를 알고있다가 뒤늦게야 대국장소가 크라운호텔로 변경되었음을 알고 불만을표시、대국이 무기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운동경기도 아닌 바둑에서 대국장소가 그처럼 문제가된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지않지만 두 기사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것이 棋界의 중론. 큰 대국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지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한국기원에서 대국이 열릴것으로 예상하며 입전태세를 다져온 曺9단이 뒤늦게야 대국장소가 다른 곳임을 알게될때 이런 입전태세가 흐트러짐은 물론 큰 대국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징크스같은것에 휘말릴수도 있기때문.

현재 王位戰도전기의 전적은 徐王位가 2승1패로 한판을 앞서있다. 曺9단은 2연패를 하다가 1승을 건진것인데 名人戰도전기에서 2연승을 올리는등 최근들어 徐7단에게 3연승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왕위전 제4국은 이런 曺9단의 기세가 그대로 계속되느냐、아니면 꺾이느냐의 중요한 대국이다.

○…3일 열린 제26기 國手戰본선 제8국 金寅8단(白)대 徐能旭6단(黑)의 대국에서는 徐6단이 1백5수만에 불계승을 했고 姜動4단(黑)대 洪太善4단(白)의 대국은 姜4단이 2백19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

같은날 열린 제7기 棋王戰본선 제16국 徐奉洙7단(黑)대 金坐基4단(白)의 대국은 徐7단이 2백47수만에 7집반을 이겼다.

○…제2회韓國女性棋友會회장배쟁탈전이 19·20양일간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다.

후지필름후원·한국기원주관으로 열리게되는 이 바둑대회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바둑팬들이 13급이상의 기력만 있으면 참가할수있다.

대국은 甲組(1~5급)乙組(6~9급)丙組(10~13급)등 3개조로 나뉘어 각조는 총호선방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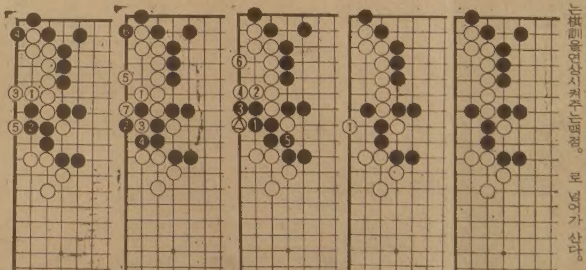
작년의 제1회 대회에는 모두 70명이 출전하여 작년도 여류아마국수인 김영4단이 甲組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참가희망자는 한국기원사업부(723-0150)나 여성기우회(739-7992)에 신청하면되며 참가금은2천원이다.

○…제2회 全國大學바둑연맹전춘계대회가 5·6양일간 崇田大학생관에서열려 지난해 우승팀인 成大팀이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2개팀이늘어 총 25개팀(여자팀 제외)이 참가한 이대회는 예정과 달리 개인전을 갖지못한채 단체전만 열렸는데 外大가 준우승、仁荷大3위、高大4위、國民大가 5위를 차지했다.

주최측은 또 여자단체전도 구상했으나 출전팀이 誠信女大 1개교뿐이어서 개인전을 벌였는데 1위 양덕숙양(中大) 2위 김영숙양(圓光女大) 3위 김현정양(誠信女大)의 순. 단일팀까지 조직할수있는 誠信女大팀의 전적이 3위에 머물러 관전자들은 『바둑은 역시 남성의 오락으로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의 棋力이 한수위임을 입증한것』같다고 한마디씩.

○…제17기 王位戰예선전이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예선은 1차(초단~3단)、2차(4~5단)、3차(6단이상)로 나뉘어 열리게되며 본선에서는 7명이 풀·리그로 도전자를 결정하게된다. 王位戰본선은 원래 리그전이었으나 작년의 경우 토너먼트방식을 취했다가 1년만에 다시 원상복귀된셈이다. 【梁平기자】



변화2도 변화1도 정해2도 정해1도 문제도

妙手풀이

<문제도> 무조건 살아야 한다. 패를 내면 안된다.

<정해1도> 白先生 白1이 얼른 발견하기어려운 기발한 묘수다. 상대편에게 좋은 점이 자기에게도좋다는棋訓을연상시켜주는맥점.

<정해2도> 黑이 1、3、5로 버텨 보아도 白은 2、4、6으로 두집을 내고 산다.

<변화1도> 白이 1로 두면 黑은 2마름모로 응수、白3、5、7로 패를 내지 않으면 살수없다.

<변화2도> 白1로 뚫때 黑이 단순히 2로 꽉 이으면 白은 3、5로 넘어가 산다.

한마리제비「마라도나」에 관심

스페인·월드컵「펠레 리포트」①

南美사태 蹴球잔치와 별개「政治的 파울플레이」없어야

스페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70년 멕시코 월드컵대회서 브라질에 3회의 영광을 안겼던 펠레는 이번 스페인 대회서도 빛나는 슈퍼스타들이 세계를 열광시키게 될것이라고 예견했다. 다음은 本紙독점계약으로 연재되는「펠레리포트」첫회 내용을 간추린것이다. 【편집자註】

◇펠 레

세계축구의 대축제인 월드컵대회 개막을앞두고 나는 南美사태를 걱정하게된다. 월드컵축구에 이미「정치적배려」가 작용하고 있지만 南美사태는 축구선수들에게 크고작은영향을 미치고있다.

아르헨티나와 英國을 알파벳순서에따라 나란히 세운다면 인간적인반감을 일으킬수있다.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 아르헨티나와 英國계 3팀이 철수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없다. 일부 정치가들이나 성급한사람들은 스포츠를 악용、그들의 파울플레이를 옹호하기위한 전쟁터로 연장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아르헨티나 메노티 감독의 견해에 동조한다. 『우리는 결코 기권하지않을것이다. 南美사태와 축구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월드컵서 승리하기위해 이곳에 왔다. 선수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전쟁에 영향을 받지않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나는 南美사태의 적대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확산되는것을 반대하고있다.

이번 월드컵축구대회에 출전한 톱클라스 선수들가운데서 내가 가장큰 관심을 갖고있는 선수는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이다. 그가 과연 세계의 팬들이 바라는것처럼 눈부신 활약을 할것인가. 마라도나의 재능과 잠재력은 이번대회서 자세히 진단 될것이다.

마라도나의 재능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도 있다. 마라도나와 브라질의 지코를 비교해볼때 그들의재능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마라도나는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한마리의 제비다.

58년 17살때 처음 스웨덴월드컵에 나갔을때 나는 브라질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선수였다. 그때는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수가 없었다.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무대를 불멸의 축구선수가 되기위한 도약대로 삼고있는데、西獨의 칼·하인즈·루메니게、蘇聯의 올레그·블로킨、스페인의 GK알코나다、영국의 케빈·키건의 활약을 보고싶다.

토론토시

토론토시부동산 납세자들에게 대한 중요게시.

지금까지 당신은 1982 마지막 부동산 세금통지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아직 통지서를 못 받았으면, 367-7115로 전화하시거나, Tax Collector, City Hall, Toronto M5H 2N2로 편지하시거나, 가능한한 빨리 시청 1층에 있는 세금 문의처로 방문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납세통지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82년도 마지막 4분기 기일은 6월15일, 7월15일, 8월16일, 9월15일이 만기입니다.

당신은 시청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또는 메트로·토론토에 있는 아무 은행 지점에 납부할 수 있읍니다. 또는 직접 시청에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읍니다. 수표앞에 "The Treasures City of Toronto"라고 명기 하십시요.

빨리 납부하셔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 당신의 세금은 토론토를 살기좋고 일하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데 봉사사업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중학교를 포함합니다. 시 봉사사업은 화재방지와 같은 쓰레기 청소, 눈 제거작업, 공원, 레크레이숀, 도로공사및 유지 ; 그리고 메트로 봉사사업은 경찰서, 사회사업, 어린이 복지사업, 앰브란스등입니다.

W.A. Wilford

City Treasurer.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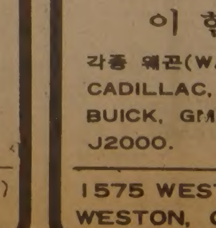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블라우스.

이태리 핸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 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정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노스 · 욕.시보레
O. 시보레, 올스모빌, 각종 중고트럭
O.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O.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더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직원모집(6명), Steeles & Warden Area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실수 있는 여자분으로 가벼운 공장일(Neither dirty nor heavy)을 하실분, 처음 Starting Pay는 시간당 $4,50이며 특히 아래주소근처에 사시는 분이면 더욱 좋겠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직접 475-8748(Mr. Magi)로 연락하시거나 한국일보 Miss 박을 찾아 문의하십시요.
100A Gibson Dr, Markham, Ont.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Cashier 구함
Downtown(토, 일) 전화: 461-5242

지렁이잡이 하실분 구함.(동부지역) 오후 5시에서 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264-3758 (Mr. 최)

경험있는 Cashier Part Time 구함.
주 2일정도 (Jane×Finch 지역)
전화 : 665-3825 오후8시이전 연락바람

동양, 서양 음식점 동업기술자 구함.
7월1일부터 배달도 할예정. 운전면허증 있는 젊은사람
전화 : 274-7010 (Mr. You)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가게 Helper 구함. (남자)
Eglinton & Bathurst Corner
전화 : 787-6970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535-2798, 233-9454
781-9591 (저녁 6시 이후)

경험이 2년정도 되는 분으로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가 있으신분 구함(시간당 $5,00)
전화 : 665-8233

혼자 계신 할머니 방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서쪽지역.
전화 : 245-6217

Donut Shop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월~금,토)
전화 : 531-2689

여권 분실

여권번호: R 296574
발행일자: 1979년 4월 23일
소지자명: 김 익균
분실날자및 장소: University & Dundas(81년 6월경)
연락처 : 743-2373

구 직

저희 집에서 애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Jane & Finch) 전화 : 661-7891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및 양도

Variety Store Special !
위치 : Oshawa Main St. 렌트 : $700
넓이 : 1250 sq.ft. 주매상 : $4,000 리스 : 6년
가격 : $39,000 + 스탁 (전부 현금요구)
9 door working cooler와 3 Bed Room Home 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모든 면허가 나와 있는 Restaurant(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 조건의 Rent와 Long Lease, 좌석: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656-9503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이훈모 부동산
1) Variety Store 매매 (짧은 영업시간)
주매상: $4,000, 렌트: $850 리스: 5년+5년
아스킹: $40,000 (2 Bed Room 아파트 포함)
2) Donut Shop
주매상: $6,500 아스킹: $220,000
리스: 20년, 다운페이: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225-1204)
전화 : 225-1204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5년.
렌 트 : $698, 가격 : $45,000+스탁.
위 치 : East of Jane & Bloor지역
주 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 있으신 분의 내방요망. 주중 9:00a.m~18:00p.m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 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번화한 관광지역 안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성업중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음)
넓이 : 2000 sq.ft., 넓은 Parking장 있음.
아스킹 : $139,000 + 스탁. 년 순이익 : $46,000
그외에 2개의 아파트먼트로부터
일년 수입 약 $5,100
Irven DeGraw
691-6111 or 1-705-325-6193
Royal Trust Real Estate, Realtor.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5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대단히 좋은 거주 지역안에 오랜동안
성업중이던 큰 Variety & Smoke Shop (in Etobicoke)
사업을 크게 일으킬수 있는 좋은 기회임.
Stan Konarzycki
전화 : 236-1871, 622-2365
Royal Trust Corporation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가게 매매"
Discount Variety Store
주매상: $3,000. 현 영업시간은 8시간이나
앞으로 원하는 만큼 길게 할수도 있음.
962 St.Clair Ave. W.
전화 : 654-4410 Vatale

Cash Register Sharp
ER-2533 전화: 364-7943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Bungalow for Sale (Private Sale)
써브웨이에서 가까운 에그린톤과 베더스트
지역. 7 룸, 큰 리크리에이션 룸, 다용도실등.
관심 있으신분 오셔서 보십시요.
전화 : 783-7954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영업시간이 짧은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000
전화 : 531-1158 낮 12시 이후 연락바람.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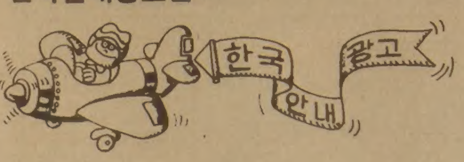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우스

〈방 구함〉
부엌, 화장실 있는 방 구함.
전화 : 921-1681

한국안내광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까요?
보다 높은 광고효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십시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날로 발전하는 한국인 커뮤니티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수 있는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신장하고 있읍니다.

■ ●매매 및 양도 ●부동산매매
●사업체매매 ●자동차매매
●하우스렌트 ●사무실·점포렌트

■ ●구인 ●구직 ●재봉사 ●찾는사람
●구혼 ●여권분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